



보험 8면	연금 10면	은퇴플랜 16면	교육 21면
직장 보험 있다면 오바마케어 가입해도 보조금 못 받아	올해부터 남은 529 플랜 벌금 없이 로스 IRA 이체	펜션, 일시불로 받을까 월 페이먼트로 받을까	대학 입시제도 변화에 맞는 전략 고민해봐야 할 때

메디칼 재산 한계 철폐

캘리포니아 파격 행보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칼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칼(메디케어)의 재산 한계가 없어진다. 더 이상 보유 재산을 보지 않고 수입만 가지고 메디칼 자격을 준다는 획기적인 조치다.

또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체류 신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수입이 적다면 누구나 메디칼(메디케어)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 체류자도 수입이 적으면 메디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 한계 없애

캘리포니아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도 더 이상 보유 재산을 보지 않고 수입으로만 메디칼 자격을 심사한다. 메디칼을 받고 있다가 65세가 넘으면 소유 재산에 따라 메디칼을 거부당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메디칼 자격은 수입만으로 계산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메디칼 수혜 자격은 연방 빈곤선 138%까지 가능하다. 1인 가족이면 연간 2만 121달러, 2인 가족 2만 7,214, 3인 가족 3만 4,307달러까지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올 4월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소폭 상향된다. 하지만 이 재산 한계 철폐는 캘리포니아에만 해당한다.

▶불법 체류자도 메디칼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수혜 자격을 불법체류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따라서 나이에 관계없이 수입이 낮다면 누구나 메디칼을 받아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칼럼

정대용 변호사	22
문상열의 Insight sport	23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4·25
이해우의 추천 詩 / 이정아의 수필	26
홍지은의 잘먹고 잘살기	27
김동희 칼럼	30

메디케어 한 번 더 바꾼다



Cover story

매년 1~3월 MA-OEP 이용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만 가능
잘못 선택한 플랜 이 기간에 바뀌
파트 B 미가입자는 이때만 가입 허용
가입한 다음 달부터 보험 효력

지난 연말 AEP 기간중 변경 가입한 메디케어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또 한 번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1월부터 3월까지 딱 한 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입한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MA-OEP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등록 기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이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즉 파트 C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만 해당된다.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랜 또는 지난 연말 AEP 기간 중에 가입한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문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이 3개월 기간 중 바꿀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극빈자용 메디케어(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고 부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올 연말 AEP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또는 가입자에게 맞지 않는 건강 보험 플랜을 가지고 내년 1년을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오

리지널 메디케어와 일반 보험회사들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어드밴티지 플랜(MA 플랜)으로 구분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지역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지비가 매우 비싸다. 반면 어드밴티지 플랜은 서울메디칼 그룹 등 지역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주지 않는 안경, 치과, 보청기, 침술, 비처방 의약품, 골프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요즘은 메디케어 가입자 절반이 가입한다.

하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간을 이용할 수 없다. 또 별도의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파트 D) 역시 변경할 수 없다. MA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메디케어를 가입해야 하는데 첫 7개월간의 가입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이 기간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오픈 등록 기간 즉, OEP(Open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르며 MA OEP와 마찬가지로 가입 다음 달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다.

4·5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제인 김 CPA
(323) 840-3238

lee & lee Gallery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nleegallery.com

생명보험 · 연금 · 상속계획 · 롱텀케어



폴 김
(213) 949-9499



서영민
(213) 738-0082

NEW YORK LIFE
뉴욕라이프

CA Insurance License # 4186507

SMRU 6003613.1

CA Insurance License # 0F3220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福

2024년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재혼했다 이혼하면 배우자 연금 많은 쪽 받아

사별 생존자 연금은 60세 이전 재혼하면 못 받아
이혼 배우자 연금은 10년 결혼, 이혼 2년 후 가능
이혼 배우자 연금 받으려면 결혼 증명, 이혼 증명 있어야
배우자 연금 자격은 결혼 1년 지나야 가능

Q 사별한 후 재혼을 했다. 그런데 14년간 살다가 이혼했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

A 최소 9개월 이상 살다가 사별을 했다면 생존배우자 연금(survivor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혼을 한다면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을 했다면 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많은 금액을 받는다.

60세 이전, 장애인은 50세 이전에 재혼을 했다면 생존배우자 연금 자격을 잃게 된다. 만약 이 나이가 지나서 재혼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죽은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배우자와 관련된 연금이다.

규정도 까다로워 상세히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질문자의 경우라면 일단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해 사별 후 재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을 알려주면 소셜 오피스에서 어떤 베니핏을 줘야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이 배우자 연금과 관련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다.

자격

많은 여성들은 전 남편의 근로 크레딧으로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 전 합의로 재혼한 남편의 은퇴 플랜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면서 소셜 연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다. 한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낳고 자란 미국 여성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여성들은 이혼 후 이혼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전 남편이 꼭 먼저 허락을 해줘야 받는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10년 결혼 생활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 연금을 받으

려면 반드시 결혼 헛수를 채워야 한다.

현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받으려면 결혼 생활 1년이 지나야 한다. 만약 현 남편이 죽어 생존배우자 연금(survivor benefit)을 받으려면 9개월 이상 살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혼한 후 이혼 배우자 연금(divorced spousal benefit)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 9.5년도 안 되고 이틀이 모자라도 안 된다. 반드시 10년이 넘어야 한다. 또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

그런데 재혼을 했다면 이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이혼 배우자 연금은 중단된다. 대신 재혼 후 1년이 지나면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재혼해 살고 있던 배우자와 헤어지면 다시 이전 배우자의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물론 현재 배우자와도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면 이전 배우자와 현재 이혼한 배우자 근로 기록으로 받게 될 배우자 연금 중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여러 번 결혼할 때

앞서 설명한 대로 여러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서 이혼배우자 연금 자격이 된다면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전 남편과 살고 있는 동안에 전 남편이 번 근로 소득에 따라 배우자 연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결혼 기간 중 올린 소득이 아니라 전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 때 받게 될 소셜 연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진다.

만약 이혼한 여성이 만기 은퇴 연령(1960년 이후부터는 67세) 때 전 남편의 기록으로 연금을 신청하면 전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일찍 받으면 금액은 50%가



아니라 32.5%로 까지 깎여 지불된다.

신청

소셜시큐리티국은 배우자 연금이나 이혼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때 결혼 증명서와 이혼 증명서를 요구한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연금을 계산하게 된다.

또 소셜시큐리티국은 이혼한 전 남편에게 절대 이혼한 여성이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다. 철저히 비밀이다.

배우자 연금은 반드시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먼저 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이혼 배우자 연금은 전 남편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62세 이상이면 언제라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례

영희 씨는 50대 중반의 미망인이다.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생활을 하다가 12년 만에 이혼했다.

영희 씨의 경우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는다. 첫 번째 결혼에서 사별한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생존배우자 연금과 두 번째 결혼했

다가 이혼한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다. 결혼생활이 최소 10년이 지났고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연금이 가능한 것이다.

영희 씨의 경우는 재혼 기간이 12년이므로 사별 배우자 연금과 이혼 배우자 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번째 결혼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될 연금의 절반(50%)과 첫 번째 사별 배우자로부터 받는 연금 중 더 큰 쪽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65세의 큰 선물!!

메디케어 신청, 모든 플랜 선택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이정인 (213)503-1810

(Jessica J. Kim) foxrainlady@gmail.com

무료 상담

메디케어, 오리지널, Supplement, PDP(약보험) 메디칼, Extra Help(보조)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플랜

#OG15778

잘못 선택한 메디케어 플랜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

MA-OEP 1월부터 3개월간 변경 가능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만 해당돼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해당 안 돼
자신에 맞지 않는 플랜 1년간 지속 예방

많은 한인들이 지난 연말 AEP 기간을 통해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또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거나 처방전 보조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선택 또는 변경했다. 올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시장이 지난해 보다 타이트해졌다. 또 변화도 많다. 의약품을 지원하는 파트 D 플랜도 크게 변했고 치과 혜택 등 다양한 추가 혜택들이 플랜마다 요동치듯 바뀌어 많은 한인들이 선택을 고민해야 했다.

지인 말에 솔깃해 플랜을 변경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플랜임을 알아채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년 내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버텨야 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사 등의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올 연말 AEP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매년 1~3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에게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더 준다. 이 변경 기간을 MA-OEP(MA-Open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른다.

A 작년 AEP 기간 중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연말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Q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연방정부는 파트 C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플랜) 가입자에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번 더 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MA 변경 기간 즉 MA-OEP(MA Open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른다.

OEP 기회
복잡하게 왜 많은 등록 기간을 두느냐고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AEP기간중 새로운 MA 플랜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약값도 비싸고 또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도 거리가 멀어 이용이 몹시 불편할 경우가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이 적을 수도 있다. 또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다른 보험

과 독자적인 파트 D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을 다른 MA 플랜으로, MA 플랜을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다면 이번 기간을 이용할 수 없고 올 겨울 AEP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플랜을 선택해야 할 일도 생긴다. 처방전이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입자들이 원치 않는 보험을 1년간 유지하고 있다면 매우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심적 부담도 클 수 있다.

이런 경우에 MA 플랜 가입자들은 첫해 3개월 동안 딱 한 차례만 플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OEP기간중 플랜을 변경했다



LA에서 열린 서울메디칼 그룹 건강검진 행사에서 정준 내과외과가 한 한인 여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메디칼 그룹의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그룹 소속 의사들과 관계자들이 발전을 다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면 플랜 유효일은 신청서를 낸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1월에 바꿨다면 2월부터 시작되며 3월에 변경했다면 4월 1일부터 유효하다.

파트 B 미가입자가 가입 기간

메디케어 파트 B는 65세 생일을 맞은 달 전후로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첫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기간 중에 파트 B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잘 몰라서 또는 알지만 당장 필요 없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또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려는 한인들도 있다. 그러나 IEP 기간이 지난 후에는 아무 때나 파트 B에 가입하지는 못한다.

연방정부는 이들을 위한 가입 기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다. 이를 오픈 가입 기간 즉, OEP(Open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르는데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가입할 수 있다. 물론 가입하지 않은 햇수마다 10%씩 매달 벌금으로 평생 내야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OEP 때 가입하면 그해 7월부터 혜택이 시작됐지만 2년 전 법이 바뀌어 가입한 다음 달부터 즉시 혜택이 시작된다.

파트 D 가입 기간

파트 D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 지원 플랜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일반 건강보험 회사들이 만들어 판매한다.

파트 D 역시 65세 생일을 맞은 달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이내에 가입한다. 만약 이 기간중 가입하지 않아 63일 이후부터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신청과 가입 상담

시니어
건강보험

CA Lic #0L06761

HMO
(어드밴티지 플랜)

Supplement 플랜
(보조보험 PPO)

처방약 보험

홍은주 Eun-Joo Powell Cell: (909) 576-3236

메디케어 파트 B 미가입자도 이때 가입 가능

가입 다음 달부터 보험 효과 시작 파트 D 변화 많아 약 플랜 확인을 서울메디칼 등 대형 그룹 주치의 선택

보험이 없다면 가입하지 않은 매 1개월마다 전국 표준 보험료(34.70달러)의 1%씩 가산되는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 등 외국에 살다가 돌아왔다면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파트 D는 파트 A 또는 파트 B중 하나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의 기본 구조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연방 정부와 계약한 일반 건강보험 회사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구분된다. 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보조해 주는 메디케어 파트 D가 기본 골격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통 메디케어 플랜이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을 커버해 주는 파트 A(hospital insurance)와 의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 주는 파트 B(medical insurance)로 구성된다.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주치의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인들에게 PPO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의 보험이다.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다. 파트 A는 40점 근로 점수(10년 이상 과세 근로자)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무료로 제공된다. 본인뿐 아니라 근로 기록이 없는 배우자 또는 이혼배우자도 해당된다.

하지만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전 소득(MAGI)이 독신 10만 3,000달러, 부부 20만 6,000달러 이하면 표준 보험료 174.90달러를 낸다. 그 이상의 수입은 5단계로 나누어 최고 594달러(독신 50만 달러 이상, 부부 75만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낸다.

물론 파트 A만 가지고 있고 파트 B는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나중에 가입하려면 평생 벌금을 내고 가입한다. 1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료의 10%를 평생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약품을 커버해 주는 처방전 플랜 파트 D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파트 D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파트 D 보험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일반 건강보험회사가 판매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플랜)

일반적으로 파트 C로 부른다.

연방정부는 미국 시니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자 일반 건강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즉,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경우에 따라 처방전 파트 D, 메디갭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메디케어 상품 개발을 의뢰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다.

정리하면 병원 플랜 파트 A, 의약품 플랜 파트 B 그리고 파트 D를 모두 포함하는 보험이다. 여기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침술, 안경, 보청기, 운동, 비처방 약품, 응급 호출기 등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해 제공한다. 또 남가주 등 메디케어 가입자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보험료가 '0'이다.

파트 C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파트 A와 파트 B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파트 B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파트 C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파트 C는 지역 네트워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처럼 전국 어디에나 사용할 수는 없다.

파트 C는 HMO, PPO 또는 PFFS로 운영된다.

잘 아는 것같이 HMO는 주치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같은 의사들의 모임인 메디칼 그룹 내에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에서 서울 메디칼 그룹의 건강 검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룹 소속 의사들과 교류 의료 관계자들이 한인들을 상담해 주고 있다.

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PPO는 주치의가 소속된 메디칼 그룹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주치의 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의사를 찾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PPO 플랜으로 부르는 한인들도 많지만 엄격히 다른 보험이다.

메디케이드, LID 가질 경우

메디케이드는 수입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르며 주마다 이름이 다르다.

또 LID는 연방 정부가 가난한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처방전 비용을 지불해주는 '추가 도움' (Extra Help) 프로그램이다. 연방빈곤선 수입 138% 이하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50%까지로 확대했다. 하지만 풀 베니핏은 아니고 부분 베니핏이 제공된다.

이 메디케이드와 LID 자격이 된다면 마지막 분기(10~12월)를 제외한 매 분기마다 바꿀 수 있으므로 MA OEP 기간이 끝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3개월마다 바꿀 수 있다.

서울메디칼 그룹

HMO와 PPO는 주치의도 중요하지만 메디칼 그룹 선택도 중요하다.

어느 메디칼 그룹을 택하느냐에 따라 의료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메디칼 그룹은 보험회사는 아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가장 크다. 따라서 남가주 보험사 대부분과 계약을 맺고 환자를 돌본



오렌지카운티 조봉남 한인회장(오른쪽)과 서울메디칼 그룹 마케팅 담당 이진호 상무가 건강 검진 행사의 취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다. 메디칼 그룹이 크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총 지원금이 매우 클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금이 매우 많다는 의미다. 자금이 풍부하므로 환자들의 진료 승인이 쉽고 빠를 것이다. 메디칼

그룹은 그만큼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작은 메디칼 그룹은 보유 자금이 작아 리퍼럴에 인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같은 대형 메디칼 그룹을 선택하면 받게 되는 장점이 될 것이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건강보험 무료상담

- ☑ 1958년생 65세 되시는 분
- ☑ 직장보험에서 떠나시는 분
- ☑ 타주/카운티에서 이사하시는 분
- ☑ 파트 A나 B를 늦게 받으신 분
- ☑ 메디케어 / 메디칼 가지신 분
- ☑ 메디칼 신규 또는 상실되신 분

허만진 213.700.8150

LC 019221

전염력 빠른 코비드 JN.1 감염자 늘어 주의해야

JN.1 변종 미국 내 감염의 44% 차지 손 씻고 공공장소 피하고 백신 맞고 예방 covidTests.gov에서 자가 검사기 무료 배포

겨울 시즌에 접어든 요즘 한동안 누그러진 것으로 보이던 코비드 19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메인 등 일부 동부 지역과 캘리포니아에서 코비드 감염으로 인한 입원환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 시즌에는 독감과 코비드 19, 호흡기 바이러스 RSV 감염 등 3종 호흡기 질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손을 자주 씻고 증상이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며 중증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던 새 변이 바이러스 JN.1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재 미국 내 감염자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우세종으로 확산되고 있

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빠른 전염력에 비해 조금 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JN.1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시하고 있다.

전 연방 보건부장관 제롬 애담스는 “팬데믹에 대한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심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비드-19의 감염을 계속되고 있어 아직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다.

CDC에 따르면 최근 새크라멘토, 올로, 엘도라도 등 캘리포니아 6개 카운티에서 코비드로 인한 입원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 중 4개 카운티가 북가주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의 응급실 입원자수는 지난주



10만 명당 246명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늘어

왜 이들 지역에서 입원환자 수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료진들은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부에서 수주전부터 입원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틀라에 사는 세실리아 린더는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났었는데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더니 죽을 것 같았다”며 26일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4일 전 코비드 자가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애담스 전 보건부 장관은 “코비드는 당분간 계속 우리 옆에 있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예상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독감과 코비드 19,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가 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 실내 모임에 참석한다면 마스크 착용과 자가 감염 테스트, 백신접종, 집안에 여러 명이 모일 때는 환기에 신경 쓰는 등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코비드 즉석 검사기 무료 배포

코비드 19 자가 검사기를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covidtests.gov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9월 1차 배포 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8개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 이메일을 입력하면 연방 우체국을 통해 무료로 배달된다.

거주 주소로만 배달되며 비즈니스 주소로는 신청할 수 없다.

만약 컴퓨터나 휴대폰이 없다면 1-800-232-0233(TTY 1-888-720-7489)으로 직접 주문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오늘의 검진이 내일의 당신을 지킵니다



정준
내과 보드 전문의



정준 내과

- 고혈압
- 당뇨
- 비만
- 정맥주사
- 신장병
- 환경호르몬

올림픽/놀만디 신한은행 건물 2층 203호

예약 문의 **213.674.7500**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 30년
함께할 그 이상

Always be with You



정준 내과는
서울메디칼그룹과 함께합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 Huntington Hospital 임상교수 역임
- UCLA 의대 내과 임상 조교수 역임
- Harbor-UCLA 임상교수 역임
- LA 카운티 보건국 내과전문의 역임
- USC 의대 내과 임상 조교수 역임

믿을수 있는
나만의 맞춤형 건강 케어



창립 30주년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

걱정하지
마세요

주치의 선생님은
평소 맨 지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어딘가 아프실 때는
신속하게 판단,
환자분께 꼭 맞는
전문의를 찾아줍니다.



홍재경 아나운서

용경빈 아나운서

탄탄한 서울 메디칼그룹과 함께 하세요!

한인 의료진이 가장 많은 서울 메디칼 그룹은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위해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폭넓은 네트워크 의료 서비스와
많은 헬스플랜 회사들과 연계하여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년 연속 5스타
환자 만족도 · 의료진의 진료 수준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TEL 213.389.0077 • 800.611.9862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고 나에게 적합한 헬스플랜을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주치의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직장 보험 있다면 오바마케어 가입해도 보조금 못 받아

직장 보험료가 종업원 수입의 8.39%를 넘지 않고 오바마케어 '브론즈' (60% 의료비 커버) 이상이면 적정 보험으로 판정돼 보조금 받지 못해 오바마케어 가입하려면 자비로 가입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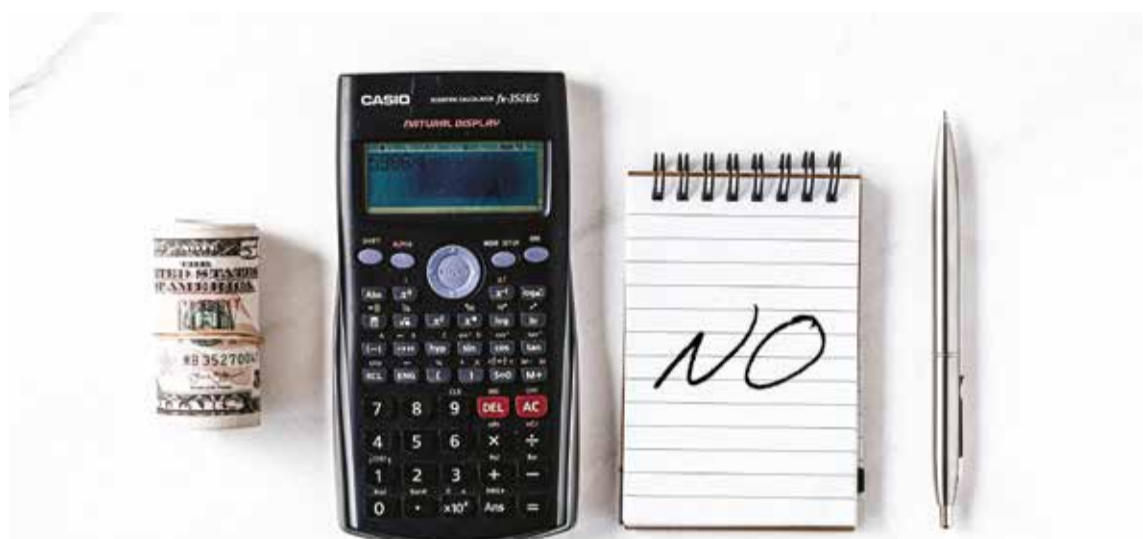
Q HMO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정상 PPO로 바꾸려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1년에 한번만 가입이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을 이용해 가입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1월말까지 가입하면 2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커버)의 보험이라면 오바마케어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다시말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로 부르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에 따라 50인 이상 고용하는 회사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만약 '적정'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풀타임 종업원 1인당 2,94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50인 이상 고용하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도 마음에 안 들거나 사정상 탈퇴하고 오바마케어를 통해 개인 보험에 가입한다면 정부에

A 직장 보험이 있어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정부가 인정하는 '적정' (affordable) 수준의 보험료이고 또 오바마케어의 '브론즈' 급 이상(의료비의 60%



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회사는 그룹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상환구좌(HRA), 보충플랜, 건강보험과 함께 사용하는 '의료비지원플랜' (FSA), 코브라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한다.

종업원 입장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 보험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사 건강보험이 연방 정부의 최소 보험 기준을 충족하고 가격도 적당하다면 종업원이 오바마케어(캘리포니아는 커버드캘리포니아, coveredca.com)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정규 가입기간을 놓쳤을 때

직장 보험은 새로 고용된 직원이 아닌 이상 연중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회사마다 한달간 기존 직원의 가입, 변경 기간을 두고 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가입 기간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가입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예처럼 직장 보험이 정부 인정 수준의 보험이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전액 자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 건강보험이란

직장에서 종업원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대부분 회사는 건강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준다. 어떤 회사들은 퇴직 직원에게도 보험을 제공해 준다. 아주 훌륭한 직장이다.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한다.

직장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전체 의료비용의 최소 60% 이상을 커버해주고 병원과 의사 진료비를 충분히 커버해 줘야 한다. 현재 오바마케어의 가장 낮은 수준인 '브론즈' (bronze) 플랜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을 제공한다면 종업원들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조금을 받아 마음에 드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적정선' (affordable) 이어야 한다. 다시말해 종업원들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건강 보험료가 종업원 가계 수입의 8.39%를 넘지 말아야 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가 '적정선'에 있는지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직장 제공 가족 건강보험

가족이란 직원 당사자와 배우자(부부공동 세금보고때), 세금보고때 존속가족으로 명시된 가족을 말한다. 26세 이하라면 세금 보고를 따로 한다고 해도 비존속가족으로 함께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해당 종업원이 가족 혜택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도 '적정선'을 판단하는 요인으로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직장 건강보험을 가지

고 있을 때는 가족 중 1명만 제공해 주는 혜택을 근거로 '적정' 보험인지 결정했다. 일단 직장 보험이 '적정' (affordable) 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모든 가족들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모든 가족들이 내는 보험료가 가족 수입의 8.39%를 넘는데도 마찬가지였다. 큰 결점으로 지적됐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결점이 보완되고 있다.

모든 가족들이 가입한 직장 건강 보험료가 가계 수입의 8.39%를 넘는다면 그 직장 건강보험은 '적정' 하지 않은 (unaffordable) 보험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가족들은 재정 보조를 받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재정 보조란 택스 크레딧과 진료비 분담 모드를 말한다.

사례별 계산법

▲ 사례 1: 종업원 월 가계소득 (household income) = 3,500달러 (연 4만 2,000달러), 종업원 월 가계소득의 8.39% = 294달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만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 = 270달러 이라면 이 보험은 적정 보험이다. 이런 경우 종업원은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 사례 2: 종업원 월 가계소득 = 2,500달러 (연 3만 달러), 가계소득의 8.39% = 209달러, 고용주 제공 최저 보험료 = 270달러 이라면 이 보험은 '적정' 하지 않다. 직장 보험료가 종업원 가계소득의 8.39%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KOREATOWN SENIOR CENTER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저녁까지 제공

- **질 좋은 식사** (아침·점심·저녁)
- **간호사·소셜워커·영양사 상담사 등 상주**
- **IHSS·은행 등 통합 서비스 제공**

크렌셔 커뮤니티 센터
1060 Crenshaw Blvd. LA. CA 90019
(213)201-7700

K - 타운 시니어센터
3400 Olympic Blvd. LA, CA 90019
(323)334-4600

주치의 예약이 어렵다면 어전트케어 이용도 방법

매년 클리닉 14%씩 늘어날 정도로 어전트케어 인기 상승
일반 클리닉 없는 X-레이, CT 촬영 갖추고 통합, IV 가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병원 응급실 찾아야
어전트케어는 해당 증상만 치료, 주치의는 병력 따라 치료

요즘 주치의 만나기 힘들다고 아우성들이다. 미국의사들은 더 심하다. 한두달 기다리는 일은 양호한 편이다. 심하면 5개월 6개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성질 급한 한인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 약재처방이나 피검사 등의 간단한 진료를 임상 간호사(NP) 또는 보조의사(PA)가 맡고 정기 검진은 담당 주치의가 맡기도 한다.

그러면 당장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개월씩 기다리다가 의사를 보기도 전에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돼 구태여 주치를 만날 필요가 없어질 때도 있다.

만약 목이 몹시 붓고 아픈데 주치의와의 예약이 어렵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전트 케어(Urgent care) 클리닉으로 가면 된다.

어전트케어 센터

어전트케어 센터는 대부분 예약이 필요 없이 당일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어떤 한인들은 주치의보다 어전트케어 센터가 더 편하다는 말도 한다.

요즘 어전트 케어는 감기, 안구 충혈 또는 접질려 근육이 늘어난 것 같은 경미한 증상을 치료하는 전통적 개념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 당일 주치의의 예약해 만날 수 없지만 예약 없이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많은 경우 어전트케어 센터

가 일반 주치의 진료실보다 더 좋은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그렇다고 주치의의 제치고 어전트케어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 기록을 꾸준히 지켜보며 건강을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건강문제를 놓칠 수 있다. 또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과 같은 중요한 예방진단에 소홀할 수 있다.

어전트케어 클리닉을 연구해온 하버드 의과대학의 아티브 메로트라 보건정책과 교수는 “어전트케어는 당장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주치의는 좀더 복합적인 건강 진단과 치료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내 어전트케어 센터는 2016년 이래 매년 14%씩 증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어전트케어협회의 루엘렌 호위치 회장은 전했다.

하버드 메로트라 교수의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5년 1인당 어전트케어 센터 방문 횟수는 두배 이상 늘었다.

어전트케어 장점

어전트케어는 의사 예약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주말, 퇴근 시간 이후, 휴일 등의 상황에서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병원 응급실(ER, Emergency room)에 가야 한다.

또 특정 부상을 치료하는 데는 의사 진료실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뉴욕의 한 어전트케어 센터 의사



인 루팔 벙크라디아는 발목을 빼었거나, 근육이 늘어났을 때, 베이거나 불에 데인 상처 등은 모두 어전트케어에서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어전트케어 센터에는 일반 주치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진료장비도 갖추고 있다.

메로트라 교수는 “보통 X-레이와, CT 스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봉합할 수 있으며 링거로 불리는 혈관 주사도 가능하다”면서 “보통 주치의의 클리닉은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료후 주치의에 알려야

만약 천식 또는 편두통과 같은 만성 질환이 도져 어전트케어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를 받은 후 주치의에게 치료 결과를 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현재 만성 질환의 증상이 어떤지 계속 주시할 수 있고 또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상치료센터에서 일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아리 프리만 응급의학과 조교수는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질환자들도 많이 내원한다”면서 치료후 주치의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편두통 횟수가 잦아지면 예방 의학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또 귀 감염이 재발되는 어린이의 경우는 귀에 관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슈는 모두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다.

보험 특히 HMO를 가지고 있다면 여행 등을 제외하고는 어전트케어 센터는 주치의 소속 의료 네트워크(메디칼 그룹)와 연결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어느 어전트케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응급실 찾아야 할 때

어전트케어가 아니라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프리드만 교수는 밝혔다.

가슴 통증 또는 안면 마비와 같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응급실로 가야 한다.

또 숨쉬기가 어렵거나 심한 복부 통증을 느낄 때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어전트케어를 찾아도 응급실로 보낼 것이므로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5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성인 어전트케어 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어전트케어센터에 가는 것이 좋다.

주치의 방문할 때

어전트케어에서는 환자의 병력과 기타 중요한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29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월 조회 수 200만 건 돌파
월 페이지 뷰 17만 명 돌파

US메트로뉴스
usmetronews.com

올해부터 남은 529 플랜, 벌금 없이 로스 IRA 이체

남은 돈 자녀들의 미래 은퇴 저축 가능
15년 이상 유지, 연간 IRA 적립 한계까지
평생 3만 5,000달러 이체할 수 있고
수표 찾아 이체 못하고 계좌에서 직접 옮겨야



529 플랜은 자녀 또는 손주들의 대학 학비를 위한 저축 플랜이다. 이 저축 플랜에 모아둔 돈을 자녀나 손주의 학비로 사용할 경우 세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녀 교육 비 마련 플랜이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가입을 꺼려한다. 주요 원인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찾으려면 수익에 대해 벌금을 내야하고 소득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22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은퇴안정법’ 2.0 버전에 따라 남은 돈을 벌금 없이 자녀 이름으로 로스 IRA에 이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쓰고 남은 돈을 세금이나 벌금 걱정 없이 자녀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은퇴 플랜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29 저축 플랜

529 저축 플랜은 세금을 낸 순수익으로 적립한다는 교육 저축 플랜이

다. 여기에서 불어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유예 혜택을 받는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등록금, 수강료, 책, 기숙사와 같은 학비로 계좌내 기금을 사용하면 그동안 늘어났던 투자 수익도 연방 면세다.

529 저축 플랜은 각 주정부가 제공하며 주내의 529 대학 학비 플랜에 투자하는 주민들에게는 투자 금액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세금 감면도 해준다.

이런 장점으로 가족들이 최대한 많이 적립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녀 또는 손주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장학금, 재정 지원 등을 받는다면 돈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벌금을 내고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부모들이 이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다.

529에 쌓인 돈을 학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찾아 쓴다면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를 내야 하고 10% 벌금까지 부

과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남은 529 플랜은 베니피셔리(자녀나 손주) 이름으로 된 로스 IRA로 벌금 없이 이체시킬 수 있게 됐다.

결국 학부모 또는 조부모들이 자녀 또는 손주들의 은퇴 플랜에 미리 투자를 해 주는 것과 같은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529를 로스 IRA로 이체하려면

529 플랜의 잔고를 로스 IRA로 이체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29 플랜은 베니피셔리 이름으로 최소 15년 이상 유지했어야 한다.

▲매년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로스 IRA 적립 한계액을 넘을 수 없다. 2024년 로스의 최대 적립금은 7,000달러다. 이금액 이상의 돈을 이체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평생 529를 로스 IRA로 이체시킬 수 있는 금액은 3만5,000달러까지다.

▲5년 이내에 529 플랜에 적립한 돈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로스 IRA로 이체할 수 없다.

▲529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이 정해진 베니피셔리가 자신의 IRA에 돈을 적립한다면 이체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24년 베니피셔리가 자신이 개설한 IRA에 3,000달러를 넣었다면 2024년에 베니피셔리의 이름으로 529에서 이체 가능한 금액은 4,000달러가 된다(IRA 연간 최대 적립 가능 금액 7,000달러 - 적립금 3,000달러 =

4,000달러).

▲이체 방법은 직접 529플랜 계좌에서 로스 IRA 계좌로 넘겨야 한다. 이를 ‘트러스트 투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529 플랜에서 수표를 받아 이를 로스 IRA로 보낼 수는 없다. 또 이체된 금액을 다시 529플랜으로 옮길 수 없다.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529 플랜을 꺼내 쓰려면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소득세와 벌금을 내야 한다.

로스 IRA란

로스 IRA는 개인 은퇴 저축 플랜이지만 세금을 내고 난 순수익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이다.

세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은퇴후 찾아 쓴다고 해도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유지를 했다면 세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은퇴후 찾아 써도 과세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529 플랜은 대학 학비 조달을 위해 적립하는 계좌이지만 로스 IRA는 은퇴를 대비해 적립하는 플랜이다. 물론 로스 IRA내에 모아둔 돈으로 자녀들의 학비로 보낼 수는 있다.

로스 IRA는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에서 적립하는 일반 IRA와는 달리 개설한지 5년이 지난후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찾아 사용해도 이자수입에 관계없이 세금 없이 쓸 수 있다. 만약 5년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59.5세 이전에 돈을 찾아 쓰게 되면 이자 수익은 일반 소득세를 내

야 하고 10%의 벌금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교육비로 사용된다면 10% 벌금은 면제된다.

2종류의 529 플랜

대표적인 것이 ‘529 대학 저축 플랜’(529 college savings plan)이다. 미국 투자회사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총 자산이 4,530억 달러에 달한다.

앞서 말한대로 세금을 낸 후 순수익으로 적립하며 교육 목적으로 찾아 쓴다면 이자에 대해서도 면세다. 보통 어카운트는 부모나 조부모 이름으로 개설하며 기금을 사용할 자녀 또는 손주 이름을 베니피셔리로 올려 놓는다. 계좌내 적립금은 IRA 처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 볼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에 대해 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개설자가 죽었거나 장애가 된 경우, 자녀들의 사관학교 진학 등의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하나는 ‘529 프리페이드 튜션 플랜’(학비 선지급 플랜, 529 prepaid tuition plan)이다.

미래의 대학 학비와 비용을 지금 시세로 묶어 놓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학비가 올라간다고 해도 현재의 화폐 가치로 학비를 내는 것이다. 대부분 주정부가 운영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지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들으며

‘고인이 고개를 끄덕 일만한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고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flulove@yahoo.com



처음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로 슈거로 간직한 부드러운 맛
새로 257

제로 슈거로 간직한 부드러운 맛

PER 1.5 FL OZ (44 ML) - AVERAGE ANALYSIS

CALORIES	CARBOHYDRATES	PROTEIN	FAT
39	0g	0g	0g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셜연금 초과 지불 통지”

**부모 장애인 연금 혜택 자녀들 ‘날벼락’
규정 까다롭고 SSA직원 부족해 업무 처리 느리고
각종 소셜 연금 초과 지불 지난 4년간 60~100억
세금 원천징수, 월급 차압까지 당할 수 있어**

크리 플라워스(38)는 지난 2월 결혼 하면서 소셜시큐리티(SSA) 웹사이트(my social security)를 개설했다. 은퇴하면 소셜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첫 페이지 상단에 플라워스가 무려 1만 7,121.21달러를 토해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아직 은퇴 나이가 되지 않았고 받은 돈도 없는 데 말이다.

플라워스는 “순간 사기를 당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소셜연금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 SSA에 전화를 했더니 1995~2003년 정부에서 너무 많

은 돈을 지불해 줬으므로 나머지 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소셜 연금이 지불되기 시작된 연도는 그녀가 고작 10살이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SSA 직원은 그녀의 나이에는 개의치 않았다. 며칠이 지난 후 플라워스의 언니 역시 똑같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달 이리저리한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초과 지불 통지서를 받는 자녀들의 사례를 들어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초과지불

연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SSA는 다양한 소셜 연금 프로그램 수령자들에게 초과 지불한 금액이 60억~10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10월까지 회수하지 못한 초과 지급금은 대략 230억 달러다. SSA는 매년 7,100만 명에게 1조 4,000달러의 각종 소셜 연금을 지불하고 있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보건 뉴스는 최근 탐사 보도를 통해 초과 지불 사태는 SSA의 실수로 또는 신청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서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규정은 매우 까다롭다. 또 SSA 자체도 직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수령자의 수입 변화에 따른 금액 조정 역시 빈번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과 지불되고 있는 사실조차 수년째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플로레스는 SSA에 수십여차례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것인지 따졌다. 그런데 아무도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초과 지불에 대한 통지는 예전 주소로 보내져 받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도 연락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장애인 연금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SSA는 아버지 개인 정보이므로 딸에게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1990년대 플라워스의 부모는 별 거해 각각 타 주에 살고 있다. 플라워스의 아버지는 SSA 장애 보험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연금을 받았

다. 장애 보험 프로그램은 신청자의 자녀들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이므로 돈은 부모 이름으로 지불된다.

플라워스의 어머니는 1년 정도 매달 100~120달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8년간 자매가 3만 4,000달러 가까이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연금 주의

SSA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은 첫 9개월간 시험 근로기간이 지난후에는 추가 수입으로 한달 1,470달러 이상 벌 수 없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 연금이 깎인다.

그런데 종종 자격을 잃은 후에도 얼마동안 계속 연금이 지불되곤 한다. 연금 수령자 본인도 SSA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SSA 자체의 업무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자문 연구회사인 ‘매스메티카’의 데니스 호프만 수석 연구원은 “근로와 관련된 초과 지불은 규정이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호프만은 장애 연금과 관련된 초과 지불은 매우 드물지만 시험 기간중 법으로 정한 근로 수입을 넘게 번장애 연금 수령자에게 약 80% 더 지불됐다면 시험 기간 9개월 동안 초과 지불된 금액의 중간값은 총 9,282달러라고 말했다.

SSA 규정에 따르면 수령자의 존속 가족 또는 배우자는 초과지불금 상환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또 미성년자나 치매 노인 친척을 위해 페이지먼트를 관리한 사람은 초과 지불 상

환의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2016년 정부회계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따르면 이전 회계 연도에 초과 지불금을 탐감 받은 사람의 약 30%는 부모가 대신 자녀들의 연금을 받을 당시 이를 알지도 못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연금 중단, 세금보고 원천징수

2015년 사라 베나비데스는 딸이 2개월이였을 때 아기의 아버지와 동네 소셜오피스를 찾아 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알아봤다. 딸의 아버지는 전직 경찰이었는데 근무중 부상을 당해 장애 연금 자격이 됐기 때문에 딸도 생활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인 사라 앞으로 매달 300달러씩 지불됐다.

딸의 아버지는 이후 이들 모녀를 떠났고 2020년 SSA는 어머니 사라에게 편지를 보내 딸의 아버지가 직장 종업원 상해보험으로부터 돈도 받으면서 소셜 장애인 연금도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초과 지불됐다고 통지했다.

사라와 남편은 처음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돈을 받는다고 담당자에게 말했지만 SSA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돈을 지불했다가 수년이 지난후에야 초과 지불 통지를 보냈다고 뉴욕 법률보조센터의 앤 캘러지가 말했다.

이로 인해 사라의 5살 딸은 소셜시큐리티국에 1만 2,768달러의 빚을 지게 됐다. 사라는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8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US METRO NEWS



The best
media to reach
Korean Seniors

REAL INFORMATION FOR REAL LIFE
MONTHLY WELL BEING GUIDE

US METRO NEWS (323)620-6717
www.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

커뮤니티 재산권 인정 주는 은퇴 구좌 권한 배우자에게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9개 주가 이에 해당
IRA는 일반 재산과 달리 배니피셔리 우선
배우자의 허락 있어야 IRA 배니피셔리 지정

요즘은 한인들도 은퇴를 대비해 준비해둔 개인은퇴플랜 IRA 또는 401(k) 등 직장 은퇴 연금 구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종종 받는 질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이 구좌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배니피셔리 지정

이들 은퇴 플랜은 가입할 때 또는 가입 도중에 구좌내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명시하게 돼 있다. 이를 배니피셔리(beneficiary)라고 부른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죽으면 돈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정해 놓는 것과 같다. 한사람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명의 이름을 올려 놓을 수도 있다. 이 배니피셔리는 유서나 트러스트보다도 우선된다. 트러스트에 이 돈을 누구한테 준다고 적어 놔어도 구좌에 적혀 있는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그 돈은 모두 구좌에 적힌 사람에게로 간다.

아무런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모두 배우자에게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주마다 규정 달라

IRA는 개인 은퇴 대비 저축 구좌다. 올리는 연간 적립 최대 금액이 지난해 보다 500달러가 오른 7,000달러다. 만약 50세 이상이라면 개인 연간 8,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금액은 벌어서 얻는 수입이어야 한다. 재산을 팔았거나 이자 수입, 렌트 수입 등 비근로 수입으로는 적립될 수 없다.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 죽으면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로 모두 유산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IRA의 경우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IRA의 배니피셔리 이름에 올라있지 않는 배우자는 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배니피셔

리로 되어 있지 않으면 IRA를 물려 받을 수 없다.

▲이혼을 했다면 배니피셔리 이름을 바꿨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배니피셔리 이름이 전 부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혼후에도 계속 전 부인이 IRA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 재산을 인정해주는 주(community property state)에 거주한다면 IRA 소유주가 배우자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을 배니피셔리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만약 IRA 소유주가 유언도 없고 배니피셔리도 지정하지 않고 죽었다면 배우자에게 모든 구좌가 유산 될 수 있다.

배니피셔리 우선권

일반 재정 구좌와 기타 자산과는 다르게 IRA는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 남긴 유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유언장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IRA에 올려 있는 배니피셔리 이름에게 모든 구좌가 상속된다는 말이다. 유언장 보다는 IRA에 적힌 이름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RA 배니피셔리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이름이 계속 남겨져 있다면 이혼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주에서 소유주가 죽으면 자동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혼을 했다면 배니피셔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배니피셔리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 구좌는 유산으로 인정돼 유언에 따라 집행된다.

IRA의 장점 중 하나가 소유주가 죽으면 프로베이트 법원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배니피셔리에게로 직접 돈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재산권 인정주(Community Property States)

미국 대부분의 주는 커뮤니티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커뮤니티 재산권이라는 말은 결혼 중에 배우자가 벌어들인 돈의 절반은 다른 배우자의 몫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재산권을 인정하는 주에 살고 있다면 죽은 배우자의 IRA는 살아 있는 배우자가 상속받게 된다.

이런 주에서는 배우자가 IRA 1차 배니피셔리로 되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니피셔리로 올리려면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원소유주가 배우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배니피셔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도 원소유주가 죽으면 IRA에 있는 돈의 절반은 배우자의 몫이고 나머지 반만 배니피셔리에게로 넘겨진다.

그런데 한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커뮤니티 재산권을 인정하는 주에서 산다고 해도 결혼전에 IRA에 투자한 돈과 이자는 커뮤니티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전 투자금은 온전히 소유주의 소유이므로 이 부분은 배우자의 허락 없이도 타인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또 결혼전에 부모 또는 누군가로부터 IRA를 물려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커뮤니티 재산권 인정주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괌,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주가 이에 해당

한다. 알래스카는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돌릴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주에서는 배니피셔리가 지정되지 않은 IRA는 소유주가 죽으면 일반 유산으로 합해져 배우자가 모든 권한을 받게 된다.

참고로 결혼 중에 생긴 부채도 부부 공동 책임이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는 '비커뮤니티 재산권'을 인정한다. 결혼을 했어도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부부 각자의 재산권이 인정된다는 말이다.

존김기자

Lic #0i99095

소셜연금 메디케어 건강보험 은퇴플랜

무료

“안내해 드립니다”

김정섭

Wilshire4525@hotmail.com

(323)620-6717

주택 구입 자녀들 57% 부모가 코사인 해줘

코사인 부모중 45%는 나중에 후회
자녀들 모기지 못 갚으면 부모 책임
소유권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때도
차라리 공동 투자 형식으로 도움이 유리

Q 결혼한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 찾아와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는 데 크레딧 점수가 낮고 수입이 적다면서 코사인을 해달라고 한다. 해줘야 하나.

A 애매한 질문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절대 코사인 해주지 말라”가 불문율이다. 친구 잃고 형제 잃고 돈 잃는다.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코사인 요구를 받고 고민에 빠진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부동산 판매가 주춤하면서 주택을 갖고 싶어도 역부족인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전국 주택건설업자협회(NAHB)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주택 구입 능력은 2007~2009년 불경기 이후 가장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다.

또 NAHB/웰스파고 주택 기회 지수는 지난해 12월 37%로 하락했다. 모기지 이자율이 다소 내려가 그나마 전담보다 4% 상승한 것이다. 참고로 전국 주택 구입자 가정 수입의 중간가는 9만 달러를 기록했다.

젊은 층 주택 구입 어려워

주택 구입 능력이 하락해 웬만한 수입으로는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크레딧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힘들다.

이들이 찾는 해결 방법중의 하나가 부모들의 코사인이다. 또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의 주택 구입을 위해 선득 코사인을 해주기도 한다.

웰스트리트저널이 분석한 온라인 모기지회사 ‘렌딩트리’의 자료를 보면 많은 부모들이 기꺼이 자녀들의 주택 구입을 도와주기 위해 코사인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주택 구입에 코사인 해준 부모는 57%나 된다. 예전에는 7%에 그쳤다.

그러나 은퇴나이가 가깝고 또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만 살아야 하는 부모로서는 자녀들의 모기지 대출 코사인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계했다.

‘렌딩트리’는 자녀들이 주택 구입에 코사인을 해준 부모의 45%는 이를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공인 재정 플래너 마리 애담은 “모기지에 코사인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대출 회사는 코사인한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 소송을 한다”면서 “그렇다고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으로 된 집을 강제로 처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용자도 어려워

부모의 이름을 모기지 대출에서 빼고 싶어도 쉽지는 않다. 자녀들이 재용자를 해야 하는데 충분한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고 크레딧을 쌓으려면 빨라야 1~2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꼼짝없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대신 내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애담 재정플래너는 “2008년 주택 붐과 때 코사인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자녀들의 크레딧이 나빠지고 또 감정 가격도 나오지



않아 당시 재용자를 받은 자녀들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코사인 보다는 증여 방식으로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추천했다.

시장 사정이 좋을 때도 모기지 코사인은 매우 위험하다.

은퇴를 하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이 직장을 잃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모기지 페이먼트는 부모들이 책임 져야 한다.

즐겁고 희망찬 은퇴 생활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코사인 해주기

65세 동갑인 캐런 카슨 위틀리어와 남편 존 위틀리는 최근 플로리다 사우스 베이튼에 있는 2베드룸, 1베스의 콘도를 딸의 이름으로 사주면서 코사인을 해 줬다. 콘도 가격은 59만 달러였다. 딸 캐론 위틀리(23)는 부모로부터 17만 8,500달러를 받아 다운페이먼트 했고 또 부모가 나머지 41만 1,500달러를 30년 고정 모기지로 코사인 해 줬다. 캐론은 간호사 공부를 하는 동안 파트타임 일을 해

오고 있다.

엄마인 캐런 위틀리는 “우리집 전 통이 졸업을 하면 집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비싼 렌트비를 내는 것보다 모기지 페이먼트 하는 것이 훨씬 좋고 그동안 에퀴티도 쌓일 것”이라고 코사인 이유를 밝혔다.

코사인에 앞서 생각할 점

코사인(cosigning)과 보증(guaranteeing)은 차이가 있다.

부동산법 전문가인 브룩클린 법과 대학의 데이비드 레이스 교수에 따르면 코사인을 해주는 부모는 자녀들과 대출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상환을 못하면 은행으로부터 부모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보증인(guarantor)이 되면 대출 은행과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달라진다. 대출금 상환의 의무는 자녀들이 먼저 지게 되며 자녀들이 상환을 못할 때에만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코사인 보다는 보증인이 옵션이 더 좋다는 것이다.

다른 옵션 찾기

부모가 코사인에 대한 책임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재정서비스 회사 카스 그룹의 제이미 흡킨스 매니저는 코사인 보다는 자녀들이 구입하는 주택을 공동 명의로 투자하고 공동 소유하는 것을 권했다.

그러면 부모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집 관리도 수월해진다. 특히 집값이 올라가면 투자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또 애담스 재정 플래너는 손님들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증여 형식으로 제공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으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1년에 최고 1만 8,000달러를 평생 증여세 면제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라면 1년에 자녀 부부에게 연간 7만 2,000달러까지 줄 수 있다. 물론 증여세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증여세 걱정 없이 줄 수 있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월빙 가이드
US메트로뉴스
특별한
월간 프리미엄 월빙가이드
고품격 월간지 US METRO NEWS가 매월 첫째주에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USMETRONEWS'는 최고급 월빙 기사를 기대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되는 월간 월빙 가이드입니다.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65세 생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메디케어 등록을 엘림종합보험에서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응답하라 1959!!

메디케어는 미국 납세자의 권리이며 가장 저렴하고 베네핏이 좋은 건강보험입니다.

등록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65세 생일전에 문의하세요**

요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엘림종합보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직 · 정확 · 친절 · 신속

Open Hour 월~금 :10am~6pm, 토 Close / 예약손님 Only



엘림종합보험

ELIM INSURANCE & RETIREMENT SERVICES INC.

License # 0M99487



Los Angeles

LA 한남마켓 건너편

213.315.5052

2727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06
hanna@aceinsus.com

Orange County

플러턴 아리랑마켓 안

714.382.6883

1701 W Orangethorpe Ave #101
Fullerton, CA 92833
candice@aceinsus.com

시애틀지역 사무실 연락처

Tacoma(Hmart 안) 253.328.5454
8720 S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Federal Way (대박왕만두 옆) 253.442.6222
33100 Pacific Hwy #3 Federal Way, WA 98003

Lynnwood(Hmart 안) 425.678.6901
3301 184th St SW #115 Lynnwood, WA 98037

펜션, 일시불로 받을까 월 페이먼트로 받을까

이자율 높아지면서 펜션 회사들 일시불 제안 은퇴 보장 수입 부족하면 평생 받는 게 유리 일시불 받으면 관리 부족으로 금방 고갈 위험 필요에 따라 잘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요즘 종업원 펜션 플랜을 운영했던 회사들이 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이 돈을 적립하고 회사가 일부 보조해주는 401(k) 은퇴 저축 플랜으로 전환하고 있다.

펜션은 회사가 종업원의 근무 연한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해 모아 뒀다가 종업원이 은퇴한 후에 은퇴 자금으로 돌려주는 플랜이다. 다시말해 전액 회사에서 돈을 적립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퇴사 직원에게 펜션을 일시불로 받던지 아니면 월 페이먼트로 받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기자의 실례를 들어 어떤 쪽이 유리한지를 놓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시불 펜션?

A 기자는 얼마전 이전에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약 4만 4,000달러 펜션을 일시불로 받던지 아니면 65세부터 매달 423달러씩 받던지 선택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곤한다.

회사로서는 일시불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이유가 있다. 일시불로 주면 회사의 회계가 훨씬 간편해진다. 또 이자율이 22년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요즘 상황에서 회사는 당초 직원에게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게 줄 수 있다. 일시불로 지불하면 이자율이 낮을 때보다 지불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펜션 플랜 자문회사 에이온이 지난 5~6월 펜션 플랜을 운영하는 대형 회사 118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한 결과, 35%는 앞으로 2년내 퇴사 종업원들에게 일시불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31%보다 늘어난 비율이다.

신중히 결정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잘 계산해 봐야 한다.

실제 펜션을 일시불로 받는 직원은 40%를 넘는다. 하지만 노년에 돈이 모두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많은 은퇴자들은 생활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펜션 지불금을 받는다. 인플레이션 비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고정 수입이다.

IRA 컨설턴트 이안 버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펜션 일시불은 평생 만져보기 힘든 큰 금액이어서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회사의 일시불 지불 제안을 최근 거절했다.

에이온에 따르면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20% 정도는 은퇴를 앞둔 종업원들에게 월 페이먼트로 평생 받던지 아니면 일시불 중 택하라고 요구한다. 또 아직 나이가 되지 않는 퇴사 종업원들에게도 일시불 지불을 제안하기도 한다.

펜션 제공 회사가 플랜을 없애거나 약속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할 때 펜션을 보장해주는 ‘미국 펜션베니티 보장 공사’(PBGC)의 자슈아 콧바움 전 사장은 보통은 펜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PBGC는 펜션 제공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현재 월 페이먼트 6,750달러까지 지불 보장해 준다.

계산해 보기

A 씨는 이전에도 펜션 일시불 제안

을 받았었다. 2015년 일시불로 3만 2,000달러를 준다고 했으나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더 오른 4만 4,000달러가 된 것이다. 펜션페이먼트를 받기 위한 은퇴 연령연령이 8년까지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는 제안을 받아들여 일시불로 받았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 봤다.

A 씨는 한 보험회사에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을 구입해 65세부터 월 423달러를 받으려면 지금 얼마의 돈을 입금시켜야 하는지 물었다. 대답은 5만 5,531달러라는 것이다. 회사가 일시불로 지불해 주겠다는 4만 4,000달러보다 1만 1,531달러나 많은 돈을 넣어야 한다.

다시말해 회사에 펜션을 그대로 두고 65세부터 423달러를 매달 받는 것이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시불을 받아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

S&P 500 지수의 장기간 평균 연 수익율을 7.4%로 계산하면 일시불로 받은 4만 4,000달러는 A 씨의 나이 65세에 7만 2,500달러로 불어난다.

이 돈을 매년 4%률에 따라 4%씩 찾아 쓴다고 가정한다면 첫달 242달러를 찾아 쓸 수 있다. 여기에 3% 인플레이션 비율을 적용한다면 84세나 되어서야 월 423달러를 받을 수 있다.

펜션을 유지할 때

A 씨가 2015년 이전 회사의 펜션 일시불 지불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예상 수명 때문이었다. 오래 살수록 펜션은 죽을 때까지 보장된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펜션 전문 계리사 스티브 버논은 소셜시큐리티베니핏(소셜연금)을 포함해 주거와 식품 같은 기본 경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보장 수입이 없다면 펜션을 일시불로 받지 말고 65세부터 매달 평생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거나 노년에 이를 다 써버리기 쉬운 사람들은 더욱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A 씨의 일시불 선택 이유

A 씨는 이 4만 4,000달러를 개인 은퇴 연금 IRA 이체시켰다. 이 돈은 최



광고 (213) 247-2938
contact@usmetronews.com

소분배금(RMD)을 받기 시작하는 75세까지 계속 세금이 유예된 채 불어나게 될 것이다.

은퇴 연령이 가까워질수록 보장 수입원을 포함해 미래의 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한다. A씨가 목표하는 423달러 월 페이먼트는 2015년에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금액이다. 그러나 요즘은 물가가 올라 544달러가 돼야 당시 금액과 동일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다.

A 씨의 펜션은 월 423달러로 고정

되기 때문에 85세까지는 들쭉 치고라도 65세가 되면 돈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고정된 금액이 해가 갈수록 A씨의 미래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돈을 찾아 투자한다고 해도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A씨는 생각했다. 매달 423달러를 받아 주식에 투자하면 연평균 5.9%의 수익율을 올려야 85세에 지불 누적금이 지금의 일시불 4만 4,000달러가 된다. 하지만 투자 위험성 등이 따르므로 수입 보장을 장담할 수는 없다. 결국 A 씨는 차라리 일시불로 찾아 IRA에 넣어 두고 남은 돈은 자녀에게 주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존김기자



독자와 함께
돌·결혼·동창회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사진 첨부 가능)
contact@usmetronews.com

“남편 소셜연금 받다가 내 것으로 바꿀 수 있나”

1953년생까지만 가능, 그 이후는 불가능
소셜연금 신청하면 배우자 연금과 동시 신청 간주
생존배우자 베니핏은 아직도 ‘restricted application’ 허용
생존 배우자의 만기은퇴정년(FRA)는 일반인보다 빨라

Q 남편과 나는 1958년생이다. 우리 부부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8개월이다. 그런데 남편은 은퇴 연령이 되기 전인 지난해 65세 8개월 때 남편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 나 역시 일을 해서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최대로 불린 다음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만기 은퇴 연령인 올해 66세 8개월에 남편 근로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받다가 70세에 내 근로 기록으로 불어난 연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나.

A 결론부터 말한다면 안된다. 만약 질문자가 만기 정년(Full Retirement Age, FRA)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질문자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도 고정돼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국은 귀하의 것과 배우자 연금 중 많은 금액을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부분이다. 연방의회는 소셜 연금 고갈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 시작하던 2015년 양당예산법을 만들어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고 자신의 연금을 계속 불려 나갔다가 나중에 큰 것으로 바꾸는 ‘선택적 신청’(restricted application) 방법을 아예 없애 버렸다.

하지만 사별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혼자 받는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사별 배우자들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53년생까지는 선택적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후 태어난 1954년 1월 2일생부터는 배우자 연금 또는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신청하면 둘 다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해 둘 중 더 많은 금액의 소셜 연금을 받는다.

이를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생일이 1월 1일이라면 전년도 출생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
2015년 양당 합의의 예산법 이전에는 선택적 신청(restricted application)이 가능했다.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는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 배우자 연금을 먼저 신청해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는 연금을 그대로 놔두고 매년 8%씩 올려 최대 금액이 되는 70세에 배우자 연금을 버리고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는 연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깡도 먹고 알도 먹는 식’으로 최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1953년생까지 이 선택적 신청 방법이 허용됐다. 따라서 이 방법은 지난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금은 연금을 신청하면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는 소셜 연금과 배우자 크레딧으로 받는 배우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딤드 파일링’이라고 부른다.

FRA 지나도 오르지 않아

만약 근로 기록을 가진 남편 또는 부인이 62세에 연금을 신청했다면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는 연금뿐 아니라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까지 동시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국에서는 소셜 연금 신청서를 받으면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신청자의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비교해 본다. 그리고 금액이 많은 쪽을 연금으로 지불해 준다.

이는 이혼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우자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기도 하다.

배우자 연금 자격이 되는데도 만기 은퇴 연령을 지나 70세까지 미룬다면 매년 8%씩 불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배우자 연금을 만기 은퇴 연령에 받으면 남편 또는 부인이 FRA에 받게 될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뒤도 불어나지 않는다. 70세까지 기다렸다고 해도 그동안 받지 못한 배우자 연금을 소급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하면 안 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6개월 치만 소급해 지불한다. 나머지는 손해를 보게 되고 정부에 헌납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연금 자격이 되는 남편 또는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1960년생부터는 67세)에 받는 소셜 연금은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되는 돈의 50%다.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기초보험금’(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이 2,000달러라면 남편 또는 부인의 배우자 연금은 절반인 1,000달러다.

이후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조정률(COLA) 이외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생존배우자는 제외(survivor benefit)

생존 배우자의 경우는 계속 선택적 신청을 할 수 있다.

남편 또는 부인이 죽었다면 살아 있는 배우자는 죽은 배우자가 받고 있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죽은 배우자의 연금을 먼저 받고 자신의 근로 크레딧으로 인한 소셜 연금을 매년 8%씩 불려 나가다가 70세에 이르러 바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년에 들어

불어나 있는 자신의 더 많은 돈을 받고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사별 생존배우자 연금 역시 일찍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들어 지급된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생존 배우자 연금보다 자신의 기록으로 받는 연금이 나중에 더 많아질 때 이야기다. 70세까지 기다려도 생존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면 의미가 없는 방법이다.

생존 배우자 연금은 60세부터(장애인은 50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죽은 배우자가 받던 또는 받을 연금보다 적게 받는다. 100% 받으려면 만기연령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생존배우자의 FRA는 일반인들과 다르다. 1957년생 생존 배우자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년 2개월(일반인보다 4개월 빠름), 1958년생은 66세 4개월, 1962년생부터는 67세가 만기 연령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US메트로뉴스

종이신문과 인터넷의 장점을 접목하여 정보읽기의 효율성과 독자의 편의성을 높인 뉴스 서비스입니다.

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



“연 수입 28만 4,167달러 될때 가장 행복감 느껴”

**예전의 7만 5,000달러는 흘러간 과거
미국인 60% “돈으로 행복 살수 있다” 믿어
120만 달러 저축했다면, 50만 달러 벌 수 있다면...
팬더믹, 고물가 시대 살면서 미국인 의식구조 변화**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돈의 가치로 비유한다. 수입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수년전만 해도 연소득 7만 5,000달러가 행복감을 느끼는 정점의 소득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주거비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변에는 주식으로 떼부자 됐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 7만 5,000달러까지 도달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수입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 오고 있다. 매일 일상, 또는 장기간 삶의 만족도가 돈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 보려는 것이다. 세상이 금전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오래된 일이라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나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재정 서비스 회사 ‘임파워’가 2023년 8월 3~13일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돈과 행복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응답자들은 더 많이 벌수록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이 밝힌 행복의 조건은 연 28만 4,167달러였다.

행복을 돈으로 산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돈을 주고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인 10명중 6명(60%)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사람들 대부분은 현재의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며 은행에도 더 많은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저축금은 120만 달러였다.

미국인 60%가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밝힌 이유는 아마도 팬더믹을 지나고 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찌들어서 일 것으로 분석된다.

요즘은 2만 달러대 자동차를 찾기 힘들다.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려면 3만달러 중반은 돼야 하는 시대가

됐다. 3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이 온통 돈잔치에 빠져 들고만 것이다.

주택 가격은 미친듯이 올랐다. 렌트비 부담으로 웬만한 수입으로는 아파트 구하기도 힘들다. 홈리스가 양성되는 요즘 같은 고물가의 험난한 세대를 이겨 나가려다 보니 나이에 관계 없이 ‘돈’을 쫓아가는 세상이 됐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0만 달러 마지노선

미국인 가계 중간소득은 연 7만 4,000달러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1년에 대략 28만 4,000달러는 벌어야 행복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또 은행에도 120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미국인들이 수년전보다 사실 더 돈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주택 에퀴티 부자가 속출했고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면서 ‘떼부자’ 된 사람들도 주변에 흔하다.

연방 준비제도에 따르면 2022년 가계의 순수 가치 중간가는 19만 2,000달러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이번 설문 조사는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크게 느낄 때 실시된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1%가 물가 상승에 의해 큰 부담을 안고 산다고 했다. 또 66%는 이자율이 자신들의 재정적 웰빙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들 상당수는 올해 수입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세대들은 낮은 수준의 6자리수 수입(10만 달러 이상)이 행복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연 50만 달러 이상은 있어야지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세대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 세대가 막 직업 전선에 뛰어든 무렵에 대공황을 포함한 재정적 맞바람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주거비가 크게 오르고 모기지 이자율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집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을 위한 금전 포인트

전통적으로 연 수입 7만 5,000달러가 될 때까지 돈이 행복감을 더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행복감을 가장 많

이 느낄 때가 연소득 7만 5,000달러까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네만 이코노미스트가 이끄는 연구팀은 아직도 이런 이론이 맞는지 확인해 봤다.

카네만 교수가 이끄는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팀은 실제 돈은 50만 달러 수입이 될 때까지 행복감을 준다고 밝혔다.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행복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7만 5,000달러는 이미 물건너간 과거의 통계가 돼 버렸다.

그러나 모든 미국인들이 모두 행복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임파워 설문은 설명했다.

응답자 67%는 공과금을 제 때 낼 수 있다면 행복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빚이 없고 돈 걱정 없이 고급진 물건을 살 수 있다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5%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다익선

연 6만 5,000달러의 급여를 받는 응답자들은 9만 5,000달러를 벌어야 스트레스도 줄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소득 25만 달러를 버는 고소득자는 35만 달러가 행복의 포인트다.

컨설팅 전문회사 ‘머스’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4년 비노조 직원들에게 3.9% 급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임파워’ 설문에서는 미국인들은 수입이 거의 50% 늘어나야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전국과학협회 학술지 ‘프로시딩스’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갑자기 1만 달러를 받은 사람은 최소 6개월 동안은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또 200만 달러를 기부한 돈 많은 부부는 그 돈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행복감이 225배나 더 높게 느꼈다는 것이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SBA Preferred Lender | bankofhope.com

Follow us on



새해 금융 목표, 뱅크오브호프와 설계하세요!

매월 차곡차곡 모으는 개인 정기 적금을 통해, 더 안전한 목돈 마련 -
최대 4.75% APY 개인 은퇴 정기 예금(IRA)으로, 세금 절약*과 은퇴 준비를 동시에 -
새해에는 뱅크오브호프의 앞서가는 서비스를 통해, 금융 목표를 설계하세요. 새 희망이 가까워 집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개인 은퇴 정기 예금

최대 4.75% APY¹

개인 정기 적금

최대 3.05% APY²

-적금 기간 및 목표금액에 따라 계좌 개설 시 최소 디파짓 금액이 다름.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해주시요.



Bank of Hope[®]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오브호프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들이 개인 세무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권고합니다.

¹개인 은퇴 정기 예금: 연이율 (Annual Percentage Yield)은 01/02/2024 기준이며, 계좌의 약정 기간과 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 적립과 APY 수익을 위해서는 최소 계좌 개설 디파짓 \$1,000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시된 연이율은 12개월 기간 동안 \$1,000 이상의 계좌는 4.75%가 적용됩니다. 18개월 기간 동안 \$1,000~\$249,999 계좌는 4.42%, \$250,000 이상의 계좌는 4.37%가 적용됩니다. 만기일 전 마지막 7일 동안을 제외하고 계좌에 추가 예금이 허용됩니다. 만기 이전 조기인출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용 기간 동안 이자율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복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로 인해 계좌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가까운 은행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²개인 정기 적금: 2023년 4월 17일 현재 고시된 연이율 (Annual Percentage Yield)은 12개월 동안 3.05%, 24개월 동안 3.05%, 36개월 동안 2.79%, 48개월 동안 2.53%, 60개월 동안 2.02%이며 고정 이율이 만기일까지 적용됩니다. 적금 가입시 입금액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목표 금액은 \$1,000에서 \$100,000까지 다양합니다. 만기일에 금액은 시작할 때의 목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 금액은 입금 일정에 따라 매월 납입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월 납입금은 반드시 뱅크오브호프의 연결된 개인 체킹 계좌나 개인 세이빙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야 합니다. 만기일에는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출금하실 경우 잔액을 모두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로 인해 계좌의 소득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가까운 은행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세 세대 원한다면 식단을 바꾸고 운동하고

젊게 할 수는 없지만 노화를 늦출 수 있어
장수는 25%만이 유전 인자에 좌우
나머지는 생활 습관 등이 결정해
몸 안의 염증 세포 몰아내고 건강 세포 늘리고

나이가 들면 대부분 대화가 건강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다 아프지 않고 죽느냐는 것이다.

백세 세대라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자리에 눕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 타고난 유전 인자도 있겠지만 장수 인자를 가졌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식 하며 운동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려놓는 삶을 산다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또 젊게 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장수의 약 25%는 유전인자에 의해 좌우된다. 나머지는 자신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일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직접적인 방법은 사실 없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건강식, 사회생활 등으로도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는 있다고 한다. 다음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자료를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야채를 많이 먹는다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야채가 풍부한 식단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적색 육류를 줄이고, 소시지나 스펀, 통조림 같은 가공 식품과 설탕 소금을 적게 먹고 야채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심장질환과 암과 같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질병의 위험을 크게 줄인다는 것이다.

야채에는 영양분이 풍부하다. 섬유질이 많고 몸에 좋은 항산화제와

식물성 화학 물질들이 가득하다. 모두 몸속의 염증을 완화해 주는 영양소들이다. 우리 세포를 보존해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식단을 꼽을 수는 없다. 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건강식으로 알려진 식단이 지중해 음식이다.

지중해 인접 국가들에서 사는 사람들은 야채와 과일, 통밀, 콩류, 씨앗, 생선, 해산물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즐긴다.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한다

몸무게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비만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수명을 단축시킨다.

비만은 우리 몸 전체에 부담을 준다. 또 염증과 호르몬 이상, 수많은 생리적 문제를 양산한다.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육체적 부담만이 아니다. 비만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우울증을 초래하고 스트레스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비만을 초래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홍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고 열량 식품 등으로 잘사는 국가의 국민들은 너무 많은 칼로리를 쉽게 섭취한다.

우리 몸도 이런 환경에 익숙해 이를 거부하기에는 너무 잘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운동이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쉽지는 않다.

많은 한인들이 걷는다. 또 산에 오



르며 근육을 키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정신 건강을 돕는다.

꼭 정기적 운동이 아니라도 좋다. 식사후 15분간만 걷는다고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우선 몸무게를 관리할 수 있다. 또 체내 지방치를 낮출 수 있다. 몸의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요즘 주목받는 몸속 염증을 제어할 수 있다. 혈류를 개선해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등 운동의 장점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안다.

하지만 실행이 문제다. 사실 일상 생활 중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라톤을 뛸 필요도 없고 매일 수 시간씩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지 않

아도 된다.

매일 즐거운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운동 습관이 될 수 있다.

담배를 끊는다

요즘 흡연자가 많이 줄었다. 담배 가격도 크게 오른데다가 흡연 장소도 마땅치 않다. 공원이나 해변에서도 흡연이 금지된 곳이 많다. 흡연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담배 대신 베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둘다 건강한 삶과 거리가 멀다. 흡연은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준다. 또 삶의 질도 떨어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냄새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준다. 치아 건강도 해롭고 입에서 역한 냄새를 발산한다.

흡연을 할 때마다 암과 심장질환,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너무 오래 이용해 끊기가 어렵다

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담배를 끊으면 나이에 관계 없이 즉각적으로 건강이 개선된다는 사실이다.

담배 대신 베이프를 사용하면 건강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베이프를 장기간 사용할 때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모른다. 세상에 출시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다.

사회 생활을 한다

노년에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면 대외 관계를 많이 하라고 한다.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의 위험이 더 높고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뿐 아니라 고뇌와 우울증 위험이 더 높아진다.

건강하게 살려면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또 사회 활동도 함께 열심히 한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대학 입시제도 변화에 맞는 전략 고민해봐야 할 때

좋아하는 분야에 깊이 있는 도전과 열정 보여주고
대학 진학에 대한 충분한 목적과 목표 있어야

최근 수년간의 입시제도를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팬데믹으로 인해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점수 제출을 지원자 판단에 맡기는 ‘테스트 옵셔널’ 제도가 도입돼 현재 진행형이고, 연방 대법원인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모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각 대학들의 입시정책에 수정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또한 명문 사립대들이 전통적으로 시행해 온 ‘레거시 제도’에 대해 긍정하지 못한 방법이란 여론이 비등하면서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대학들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올해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앞으로 입시를 치를 예비 수험생들에게 어떤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를 새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어떤 스펙과 모습으로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자.

지적 호기심을 보여준다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은 입학 사정에서 합격에 기회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명문 사립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다면 이 커리큘럼 외에 자신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도전과 열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분야에 관한 서적을 탐구하며 이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해 이와 관련된 학문적인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면 지적 호기심을 보다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

또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이나 조직을 만들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

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의 관심과 열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낸다면 관심과 열정, 그리고 결실이란 삼박자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즉 연구나 활동의 결과를 보고서나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관점과 신념을 보여주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물론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학에 자신의 도전적인 모습과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

대학과의 소통 노력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니다.

대학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지원서를 검토하면서 이 지원자가 대학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것을 궁금해했고, 또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즉 캠퍼스 투어를 했는지, 대학 입학 사무처나 교직원 및 교수, 재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무엇을 질문했는지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판단한다.

다시 말해 지원 예정자는 그 대학에 방문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알기 위해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입학 사정 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은 지원자들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학업능력이 대학이 원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그 대학에 지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강한 입학의



지와 열정을 가진 지원자로 인식될 수 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대학은 합격하면 입학할 것이라 지원자를 찾고 있다.

대학과의 소통은 왜 지원자가 우리 대학을 오고 싶어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메일과 예약을 통한 방문 등은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올바른 전공 선택

사실 많은 지원자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정작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대신 경쟁이 덜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전공을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설령 합격해 입학해도 길지 않은 시간에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

또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수강한 과목과 성적, 그리고 과외활동에서 보여준 지원자의 성격이나 특성, 관심 분야가 전혀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 역시 입학 사정 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선택했지만, 성적표에서는 관련 과목들이 이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만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학업과 활동에서 나타나는 강점과 연결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욕심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학 진학 이유에 관한 충분한 설명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다소 애매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왜 대학에 진학하려는 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대동소이한 답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반드시 지원자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사 학위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고민과 리서치가 따라줘야 한다.

대학은 이런 지원자를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래서 대학들은 지원자들을 심사할 때 이 지원자가 대학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깊이 있게 살펴본다.

필립 기자



캠핑카도 레몬법 가능할까?

전문가칼럼

정대용 변호사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수시로 비포장도로를 달경거리며 달리는 캠핑카에 고장이 잦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캠핑카도 레몬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한다.

지난 2022년 말, 가족과의 단란한 주말여행을 꿈꾸며 캠핑카(2023 Sanctuary)를 구입한 한인 Y 씨에게 캠핑카는 구입 직후부터 애물단지였다.

‘벤츠 스프린터(Sprinter)’를 개조한 이 모델은 차값만 20만 불이 가까이하지만, 첫 여행에서부터 화장실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차량 뒤편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았다.

얼마 전부터는 차량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 하는 스크린이 먹통이 됐다. 한번 수리를 맡기면 한 달 이상 딜러에 처박혀 꼼짝 않는 것도 다반사여서, 차량 구입 후 1년이 다 돼가는 동안 실제로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 횟수는 2~3번에 불과하다.

결국, Y 씨는 캠핑카 판매업체(TMC)를 상대로 레몬법을 통해 보상을 요구했고, 치열한 공방 끝에 총 3만 5,000불을 보상받는 데 합의했다. Y 씨는 원래 차를 ‘처분(return)’하기를 원했지만, 구매 시 나도 모르는 사인 사인한 서류에는 환불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조지아주에 사는 한인 K 씨 역시 가족은 물론,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캠핑카(2022 Tiburon)를 구매했다. 역시 벤츠 스프린터 모델을 개조한 이 캠핑카는 여행 후 돌아오는 길에서 멈춰버렸고, 결국 딜러까지 견인할 수밖에 없었다. 검사 결과 차체의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총 31일 동안 수리한 끝에 찾을 수 있었다.

K 씨는 벤츠를 상대로 레몬법에 근거한 보상을 요구했고, 차량 구매 금액 대부분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차를 반납하기로 했다.

플로리다주에서 사는 한인 A 씨가 구입한 캠핑카는 비만 오면 지붕과 앞 유리에서 물이 샌다. 레몬법을 바탕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500달러 보상 제안을 받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캠핑카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미리 알아두자.

캠핑카는 캠핑카 전문 개조업체가 일반 자동차회사(벤츠, 포드 등)로부터 전년도 모델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뒤, 차량 윗부분을 개조해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자동차의 엔진이나 동력장치(powertrain) 부분은 자동차 회사의 워런티가 적용되는 반면 캠핑 관련 시설은 캠핑카

판매업체의 워런티가 적용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캠핑 관련 부분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워런티 기간이 1~2년으로 짧다.

이런 이유로 고장 부위에 따라 자동차회사 딜러에서 수리를 받을지, 아니면 캠핑카 회사에서 수리를 받을지도 달라진다. 엔진이나 차체 문제라면 자동차회사 딜러에서 수리받게 되고, 캠핑 관련 시설에 고장이 난다면 판매업체 딜러를 찾아야 한다. 아울러, 잦은 고장으로 레몬법으로 보상받기 원한다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할지, 판매업체를 상대로 클레임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혹시 이미 구매한 캠핑카의 잦은 고장으로 속속이는 분이 있다면, 레몬법을 통한 보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캠핑카(RV)는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로망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한인들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지면서 레저용 차량이나 캠핑카를 구입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캠핑카를 구입했다가 잦은 고장에 골치 아파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생각해 보라. 캠핑카라고 하는 것이 시속 50~6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집을 싣고 다니는 이동식 주택 아닌가. 가만히 있는 전자제품이나 가구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 나기 마련인데,

뻔한 기사 한번 보고 버려지는 신문기사

US메트로뉴스
오래 두고두고 보셔도 됩니다

US메트로뉴스

12살 다슬이의 그림 일기

색상의 영향 (The impact of color)

지난달에는 정물화를 연필로 그렸는데, 이번에는 같은 정물화를 수채화로 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 궁금했어요. 수채화로 그릴 때는 사과를 한 개 더 넣었지만, 전체 그림의 분위기는 매우 비슷해요. 수채화로 정물을 그려본 것이 처음이라 별로 잘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꽤 잘한 것 같아요!

셰이딩(Shading)을 한 거랑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요. 셰이딩은 연필로 여러 선을 표현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흑과 백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하지만 수채화는 그 반대예요. 색상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셰이딩은 세련되고 깨끗해 보이지만 수채화는 질감과 진하고 흐린 것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듯 다른 두 그림을 그리면서 두 가지 다른 버전의 아트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할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하다



문상열의
Insight Sport

필자는 1998년 12월 '코리안 특급' 박찬호 특파원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왔다.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1년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자녀들의 미국 내 진학으로 본격적인 이민을 시작한 셈이다.

올드 타이머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산 기간이 훨씬 긴 분들이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생활이 더 길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사안을 한국-미국을 비교해 보는 습관이 있다. 요즘은 한국 경제와 위상이 높아지면서 역이만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이 고향이 아닐까 싶다.

미국에 등지를 틀면서 한국과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것은 장애인, 소수 배려, 정년 없는 근무 등이다. 장애인이나 소수 배려에서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정년 없는 근무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한국은 '조로(早老)하는 사회'다. 모든 게 빨리 빨리로 통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얼굴이 너무 쉽게 바뀐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 외에는 50대는 문화재급이다. 퇴물 취급을 받는다.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비슷한 분위기다. 야구의 경우 60대 감독은 KBO리그 10개 팀 가운데 한 곳도 없다. 메이저리그에는 60대 감독이 꽤 있다. 지난해 SF 자이언츠에서 물러난 뒤 3년의 공백을 딛고 텍사스 레인저스로 복귀한 브루스 보치는 68세다. SF에서 3차례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끈 보치는 1961년 팀 창단 이래 우승이 없었던 텍사스에 트로피를 안겼다. 노장 감독의 역할은 살아 있었다.

30개 팀의 60대 이상 감독은 6명이다. 오프시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고향팀 SF 자이언츠로 이적한 밥 멜빈이 62세로 60대로는 최연소다. 2014년 텍사스 감독 이후 10년 만에 지휘봉을 다시 잡는 LA 에인절스 론 워싱턴은 MLB 최고령 감독이 됐다. 71세다.

필자가 가장 애청하는 방송이 'CBS의 선데이 모닝'이다. 일요일 아침(서부 시간 오전 6시~7시 30분)에 방영하는 뉴스 매거진 형태의 연성 프로그램이다.

1979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도 45년째를 맞는 CBS의 간판격이다. 찰스 쿠랄트가 방송 원년부터 15년을 진행했다. 시그널 음악이 트럼펫 연



브루스 보치(68세)
텍사스 레인저스 감독

밥 멜빈(62세)
SF 자이언츠 감독

론 워싱턴(71세)
LA 에인절스 감독
MLB 최고령 감독

정년에 묶여 한국 60대 기자 전무 아쉬워 연륜, 실력으로 고령에도 뛰는 미국 부럽다

주로 유명하다. 방송 종료를 트럼펫 연주와 함께 동물의 세계로 마친다. CBS는 60minutes, 선데이 모닝 등 뉴스면에서 ABC, NBC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강한 편이다. ABC는 스포츠, NBC는 드라마가 특화돼 있다.

현 선데이 모닝 진행자는 예전 NBC 아침방송 'Today'로 유명했던 제인 폴리가 2016년부터 맡고 있다. 방송 경력만 52년의 베테랑이다. 여성 진행자 제인은 73세다. 남편은 정치풍자 만화로 유명한 개리 트루도다.

지난해 12월 프로그램에서 HBO의 Real sports with Bryan Gumble의 브라이언 검블(75)을 초대할 적이 있다. 프로그램 제목이 '올드 프렌드'였다. 제인과 브라이언은 아침 방송 '투데이 쇼'를 8년 동안 공동 진행자로 팬들의 인기를 누렸다. 친구와 장은 오래될수록 좋은 법.

검블이 진행한 '리얼 스포츠'는 2023년 12월 29시즌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리얼 스포츠'는 휴먼 스토리, 스포츠 고발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았다. 즐겨서 시청한 프로그램 폐지가 매우 섭섭하다.

선데이 모닝은 진행자 제인 폴리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리포터들도 산전수전 다 겪은 방송인들이다. 여성 리포터 트레이시 스미스 55, 마타 타이시노, 리타 브레이버 이상 75세, 남성들도 기본 50대다. 국내에는 이런 리포터들의 고령층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없는 환경이다. 저녁 뉴스 프로그램 남녀 앵커들이 모두 풋내기들이다. 그렇다 보니 뉴스의 무게와 신뢰 면에서 떨어진다.

현재 'CBS 60분'의 리포터로 활약하는 레슬리 스탈은 82세다. 백악관 특파원도 지냈던 그녀는 한창때 기자로서의 자질보다 외모로 승부

를 걸었다는 비아냥을 들었을 정도로 미모다. 외모를 덜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안경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스탈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방송기자로 맹활약하고 있다. 그녀가 인터뷰한 세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한국에는 정년 때문에 60대 기자도 없다. 스포츠 캐스터 역시 없다. 폭스스포츠의 NFL 선데이 패널 테리 브래드쇼는 75세다. 국내는 모든 방송의 프로그램들이 걸만 번지르르하고 깊이는 없다. 얼굴이 너무 자주 바뀐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다.

미국에 살면서 받는 큰 위안이 나이를 따지지 않는 점이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사회다.

문상열 전문기자
moonsytxas@hotmail.com

문상열

1989년부터 스포츠 기자로 활동. 현재 라디오코리아 스포츠 해설위원. 메이저리그 38개 구장 취재. 스포츠는 정직하다. Numbers Never Lie.



이경수 작가
KCC(Kauai Community College,
HI) 미술과 교수 역임. (현) Gallery
KLBT Art Director

“선구자적인 미국의 여성 추상표현주의”



Joan Mitchell

한 편의 시를 감상하는 느낌을 받곤 한다
잔잔함, 격정적 잠재된 감정의 조화 절묘한 매력

예술가들은 장르만 다를 뿐 자신만의 끊임없는 표현을 하게 된다. 각자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창작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과 새로움을 찾는 열정과 노력은 계속되게 마련이다.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립하는 과정에는 많은 마스터들의 작품을 통하여 영감과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화가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하게 된다. 나 역시 그런 당연한 과정을 경험했으며, 화가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시대별로 내가 좋아하는 화가중 조안 미첼(Joan Mitchell)은 나에게 작품의 영감을 주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 나와는 유사한 점이 있는 작가라 생각된다.

오래전 내가 처음 미술관에서 조안의 작품을 대했을 때 작가의 존재도 모르는 채 나와 비슷한 감성과 색

감을 가진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서로 작품의 교류도 없었는데 나에게 전달되는 유사한 에너지의 파장은 강력했다. 그 이후로 미첼의 작품을 찾아보며, 작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예술에 대한 그녀의 철학과 작품을 풀어가는 과정, 일상의 습관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아내니 신기하리만치 반가웠다. 우연히 만나게 된 조안 미첼의 작품 속에서 비록 동시대의 작가는 아니었지만 우연이 만든 필연의 예술세계를 접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다. 조안 미첼(Joan Mitchell 1925~1992)은 미국 태생의 추상표현주의 여성화가이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 후 학교로부터 받은 1년 동안의 프랑스 여행 펠로우십은 향후 그녀의 작품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연으로 부터 작품의 모티브를



joan mitchell



떠올리는 그녀에게 시카고 미시건 호수와 들판, 물에 관한 느낌은 친숙한 작품의 소재가 되었으며, 사실적인 묘사를 지양한 그녀는 자연에서 기억된 풍경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 대부분의 추상 작가들이 작품을 풀어가는 방법인데, 조안 미첼은 “기억된 풍경 속에 더 많은 감정과 그 변화되는 감정 속에서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 이라고 말한다.

미첼은 뉴욕에 정착하며 동시대 예술가들의 ‘뉴욕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선도적인 젊은 추상화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게 된다. 1955년부터는 미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다 1959년 프랑스에 영구 정착하여 작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1992년 사망할 때 까지 그곳에서 많은 추상화를 남겼다.

대부분 캔버스에 유화 작품들과 프린트 제작에 참여한 미첼은 오랜 시간 다작을 통하여 그녀의 세계를 정의하는 요소인 물, 나무, 개, 시, 음악으로 만들어진 추상적 이미지와 그녀가 작업한 ‘추억’이 만들어졌다.

1982년 파리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진 최초의 미국 여성 예술

가로 기록되며, 미국 휘트니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 현대미술관 등에서도 작품이 영구 소장되어있다.

조안 미첼의 그림을 대하면 한편의 시를 감상하는 느낌을 받곤 한다. 작품 안에 내재된 수많은 감정들과 기억들은 감상자들에게 다양한 삶의 여정을 안내하기도 한다. 잔잔한 평화로움과 격정적으로 잠재된 감정의 조화는 그녀의 그림을 대하면 느끼게 되는 절묘한 매력이라 생각된다.

작품을 할때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을 듣는다는 조안은 그 음악 안에서 색감의 영감을 받게 되고, 그런 제작방법은 자연스레 그녀의 붓질을 움직이게 한다. 다양한 음폭 만큼이나 깊고 넓은 색감의 영역은 감상자들이 그녀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된 듯하다.

인상파의 세잔과 반고흐를 거쳐 추상파의 칸딘스키와 드쿠닝, 클라인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화가 조안 미첼은 자신만의 기억된 풍경 속에서 삶의 형태, 공간, 색상에 대한 예리한 시각적 관찰이 그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였고,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는 작가로 기억된다.

글이경수



Mark Rothko - Red



Vincent Van Gogh - Sunflowers



Yves Klein - Blue



Pablo Picasso - (monochrome)



Claude Monet - Pink Willows

올해의 색은 모든 것 포용하는 피치퍼즈(Peach Fuzz)

색채심리

색은 현대인의 오관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내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새해 삶의 활력이 되기를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이 있는가. 사람들은 각자의 기호색이 있기도 하지만, 색은 사용목적이나 분위기등에 따라 그 선택이 쉽게 변하기도 한다. 색과 사람의 마음은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무의식으로 선택되기도 하는 시각적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재미삼아 올해의 색이 무엇인가 찾아 보게 되는데, 팬톤(Pantone) 컬러 연구소는 피치퍼즈(Peach Fuzz)컬러를 2024년의 색상으로 선정했다.



색은 일반적으로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뉜다. 무채색은 말 그대로 마음에서 색이 사라질때를 의미하며 흰색, 검정, 회색이 이에 해당된다. 시작을 의미하는 청정무구의 흰색과 죽음과 끝을 상징하는 검정은 색의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제 또는 반기하기도 한다. 무채색은 가장 중성적인 색으로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절제의 의미도 담고 있어 수도자의 의복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힘과 심리를 이용한 디자인이 예상된다. 색이란 사람의 오관을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색채의 심리학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되었다. 색은 일반적으로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뉜다. 무채색은 말 그대로 마음에서 색이 사라질때를 의미하며 흰색, 검정, 회색이 이에 해당된다. 시작을 의미하는 청정무구의 흰색과 죽음과 끝을 상징하는 검정은 색의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제 또는 반기하기도 한다. 무채색은 가장 중성적인 색으로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절제의 의미도 담고 있어 수도자의 의복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인간의 희노애락과 일

상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유채색은 다양한 색상 만큼 그 색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

빨강(Red)은 색 중에 가장 원초적인 색이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최초로 의식한 빨간색은 가장 자극적인 색상이다. 승리와 환호등 기쁨의 요소도 있지만, 애증과 애정의 결핍에서 오는 슬픔과 공포의 대비적인 성격도 내포한다. 붉은악마 응원단의 의상이 빨간색인 이유도 에너지의 파장이 강한 선동적인 효과를 얻기 위함이며, 뭉크의 그림(절규)에서 보여진 빨강은 인간 감정의 공포와 파멸이 잘 표현된 색의 부정적인 양면성을 보여준다.

노랑색(Yellow)은 정신상태와 가장 관련이 깊다. 색채론의 저자 요하네스 이텐은 노랑색에 대해 “노랑은 여러 색상 중에서 무엇보다 환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빛을 비추어 본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색 중에 명도가 가장 높은 노랑을 보고 있으면 밝은 예쁨에 기분이 좋아짐을 느낀다. 노랑의 구도자로 알려진 반 고흐는 해바라기를 비롯하여

노란방, 자화상등의 작품에서 노랑색을 많이 사용했다. 당시 작품들은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고흐의 빛의 밝음과 따뜻함을 원했던 무의식적인 색상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파랑(Blue)은 해방감, 자유, 고독과 치유, 정확, 내적성장등 깊은 인간내면의 색이다. 피카소의 청색시대에 나오는 파란색의 그림들은 우울을 상징하며, 어두운 내면을 나타낸다. 절망과 이별의 쓸쓸함도 있지만, 절망속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상징하는 파랑색의 영역은 깊고도 넓다. 색 중에 가장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파랑의 또 다른 매력이다.

초록(Green)은 생명의 색이다. 색 중에 시각적인 안정감과 함께 감정의 안식을 추구한다. ‘건강해 진다’ 라는 의미와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켜주어 심리적인 치료 효과에도 기여를 한다. 자연을 상징하는 원초적인 색으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선물하지만, 너무 오랜시간 보고 있으면 시각적 포만감으로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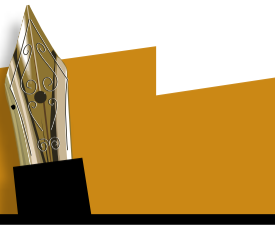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보라(Purple)는 빨강과 파랑의 극단적이고 상반된 색의 조화로 분리된 감정을 융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빨강

과 파랑의 혼합 비율에 따라 자주색을 포함한 다양한 보라색상은 복잡적이고 미묘하다. 다분히 귀족적인 색으로 풍부한 감성을 지닌 예술가 성향이 강하며 신비롭기까지 한 보라색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분홍(Pink)은 빨강의 열정과 에너지와 흰색의 순수함과 천진함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부드러운 에너지의 색상이다. 가장 행복함을 이 미지하는 긍정적인 여성의 색이다. 르네상스 이후 종교화의 대부분이 천상의 색으로 엷은 분홍색이 많이 쓰일 만큼 분홍은 사랑과 행복의 상징이다.

분홍색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따뜻하며 달콤함을 느끼게 한다.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 피치퍼즈(복숭아색) 역시 엷은 핑크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훨씬 부드러운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색채의 심리도 필요에 따라 잘 이용하면 생활의 지혜로 많은 도움이 된다. 새해가 밝았다. 내가 좋아하는 색을 생각해 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색상으로 생활에 변화를 주어 보는 것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삶의 활력이 될 것이다.

글 이경수



12월 추천 詩

나도 내 소리 내 봤으면

이생진

산은 산에게 주고
강은 강에게 주었으면

나팔은 나팔수에게 주고
파리 목숨은 파리에게 주었으면

그리고 나머지것들도 다 찾아간 다음
나도 내게 주었으면

방울 소리 방울에서 나고
파도 소리 파도에서 나듯
나도 내 소리 내 봤으면

〈감상〉

이시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에게 주고’란 단어를 ‘의 것이고’로 대체하면 된다. 말하자면 ‘산은 산의 것이고, 강은 강의 것이고...’와 같이 말이다. 당연한 말이다. 세상의 만물은 주체가 뚜렷하다. 가식하지 않기에 그렇다. 모든 줄의 끝이 당연한 사실을 나열하였는데, 맨 끝 연은, ‘나도 내 소리 내 봤으면’이란 가정법이다. 가정이란 사실이 그렇지 않기에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담긴 말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내 소리가 내 것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다. 왜일까? 말은 진심과 진실이 담겨야 한다. 그럼에도 우린 가식적인 말과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한다. 왜냐하면 우린 상대의 입장에 서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소리가 다 내 소리가 아니다.

추천작가

이해우(미국명: Jason Lee)

저서: 흑등고래의 노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2020 모산 문학상 대상 수상
2018 <나래시조> 신인상 등단
2006 미주 중앙 신인문학상 수상 (단편소설)
Senior java Programmer at Disney Consumer Products
Senior java Programmer at Pratt & Whitney Rocketdyne
Senior Bio-statistician and DB Manager at Kaiser Permanente



이정아의
이달의 수필

끝없는 욕심

회사 야적장의 긴 담과 주차장 사이의 공간은 별로 쓸모가 없는 공간이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외진 곳이어서 직원이나 방문객들은 그곳에 차를 세우지 않는다. 대형 쓰레기통과 기계실 사이는 조용한 공간이 된다. 우리는 하루에 한번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만 그곳으로 갈 뿐이다.

어느 날부터 인지 모르게 홈리스(무숙자)가 한 명 잠을 자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니 무숙자에게엔 안성맞춤의 장소였으리라. 약간 거슬리는 했지만 큰 방해도 안될 뿐 아니라, 알뜰한 동정심이 발동하여 싫은 소리 않고 두었다. 여비서 주디는 흑인이어서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쓰레기 비우러 갈 때 가까이 가면 냄새가 진동한다며 코를 싸쥐곤 했다.

빈 박스를 구해와서 사방을 두르기도 하고 깔고도 자는 모양인지 누런 박스가 몇 개 쌓여있었다. 사무실에 새 의자를 사고 기다란 박스가 생겼길래 가져다주었더니, 박스 안에 들어가 자기에 좋다고 새 침대가 생긴 것만양 좋아한다.

돈 안 들이고 좋은 일 한 것 같고, 나의 배려심에 잠시 우쭐하였다. 그러나 그게 실수였다. 빈 상자까지 갖다 바치니 그곳에 살림 차려도 좋다고 허락한 것으로 알았는지 그다음 날 보니 여자 한 사람이 더 늘었다. 아침에 차를 주차하려는데 일부러 쫓아와 인사를 시킨다. 자기 걸 프렌드라나? 며칠 두고 보니 그저 잠시 방문한 걸프렌드인 모양이었다.

여자를 들이더니 살림이 늘기 시작했다. 빈 박스를 여러 겹 쌓아서 침대와 같은 기분을 내더니 어디선가 자동차에서 떼어낸 의자를 주어져서 응접실도 만들었다. 돌이 앉아 끌어안기도 하고 낮 뜨거운 장면도 연출하더니 잠잘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림을 시작하였다. 2인용 소파도 들여놓고, 먼저 주워온 자동차 의자에 나무로 된 스탠드형 옷걸이까지 세워 두었다. 그리고 나니 주차면적 세 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자의 살림 솜씨가 좋은지 이웃 마켓에서 슬쩍 해온 철제 카트에는 옷가지며 슬리핑 백에 텐트까지 살림이 가득했다. 그것도 모자라 카트의 쇠창살마다 비닐주머니에 담은 살림을 주렁주렁 달아 놓았는데 한 주머니에는 바나나가, 한 봉지엔 빵과 음료수가, 또 다른 주머니엔 리사이클 용 깡통들이 들어있었다.

더 우스운 것은 아기용 접는 유모차도 하나 주머니에 카트에 달고 다니는 거였다. 운동화도 매달려있고, 사발시계도 얹혀있다. 움직일 때마다 같이 흔들리는 그들의 살림들은 서로 부딪치며

달그락 소리도 낸다.

나가라고 하기엔 살림이 너무 늘었고 미안하였다. 청소하는 이가 와서 일주일에 한번 주차장을 물청소할라치면 가구는 둔 채 살림살이를 가지고 건너편에 가서 청소가 끝나기를 기다리곤 한다. 사무실 창 너머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살림이 가득 담긴 두 개의 카트를 밀고 짹짹하며 길을 건너는 두내외를 보았다. 차는 마구 오고 가는데 카트가 너무 무거워 잘 굴러가지가 않는다. 보다 못해 거들어 주려는 다른 이에게 몹시 화를 내는 모습이 보였다. 자기 집에 손도 못 대게 하면서 뺨길까 봐 방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무숙자의 카트에 담긴 짐이 무에 부러워 손을 댔으리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다. 홈리스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자의 건타의 건타 빼앗긴 상태였을 것이었다. 경험을 해보진 않았어도 홈리스라 하면 욕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날그날 먹을 것만 해결하면 만족할 사람들로 막연히 여겼었다.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는 도둑맞을 염려가 없으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인가보다. 한뼉잠을 자는 마당에 그저 끌어모으는 무숙자를 보면서 나의 삶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쓸데없는 악착을 부려 공연히 지니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무소유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남들 모르는 숨겨져 있는 욕심은 없는지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웠다. 우리 집에만 해도 정작 필요도 없는 물건과 물건이 얼마나 넘쳐나는가 말이다. 가구와 가전제품 사이에서 겨우 몸을 비집고 사는 격이 아닌지.

주위의 불평 때문에 “방 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내겐 큰 숙제이다. 시청에 이야기하면 그들은 무숙자 보호소로 수용이 되고, 살림은 청소차가 치워간다고 한다. 그들의 스위트 홈을 깨려는 나의 맘을 눈치 못 채고, 오늘도 흰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그들에게 “굿모닝~” 했지만 마음은 무겁다.

이정아(본명: 임정아)

경겨여중고,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1991년 교민백일장 장원
1997년 한국수필 등단
재미수필문학가협회회장, 이사장 역임
피오 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후원 회장 역임.
선집 『아버지의 굴나무』 외 수필집 다수
조경희 문학상외 다수
한국일보 (미주) 문예공모전 심사위원
한국일보 칼럼 집필(1998년~2012년)
현재 중앙일보 미주판 칼럼(이 아침에) 집필



홍 기자의 웰빙정보

잘먹고
잘살기

요즘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가 있을까

요즘 대세 캐릭터 모음

대화가 통하는 신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위한 필독코너

전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이자 애니메이션계의 영원한 클래식인 마키마우스와 친구들, 그리고 한국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던 뽀로로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마키마우스와 뽀로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들의 영웅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포켓몬스터, 마블 히어로즈, 한국의 캐치 티니핑 등 새로운 캐릭터의 출연으로 장난감 시장은 점점 '진화' 되었다. 손주들과 대화가 통하는 멋진 조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캐릭터 중 최근 가장 '핫' 한 캐릭터 세 종류를 소개한다.



마블 히어로즈의 가장 인기캐릭터인 아이언맨 코스튬.

포켓몬스터
포켓몬 컴퍼니가 1996년 발매한 게임 시리즈와 이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과 영화다. 포켓몬은 전 세계적 문화 현상이라 불릴 만큼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폭넓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줄임말인 포켓몬(Pokemon)이라 불리는 작은 동물 같은 생명체를 몬스터볼, 수퍼볼, 마스터 볼이라는 가상의 휴대용 캡슐로 포획해 애완 동물처럼 키우면서 이들과 배틀을 하며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주인공인 애쉬(Ash, 한국명 지호)와 그의 포켓몬인 피카츄(Pikachu), 신비로운 전설의 포켓몬인 뮤(Mew)와 뮤츠(Mewtwo), 이브이(Eevee) 등 대표적인 캐릭터로, 이들의 인기는 웬만한 아이들 못지 않을 정도다.

한국에서는 삼립 식품에서 포켓몬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있는 포켓몬 빵을 출시하였는데, 이 포켓몬 빵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줄을 서는 기이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캐릭터가 랜덤으로 들어있는 포켓몬 카드나 포켓몬 키링 장난감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출시한 지 벌써 20여 년이 넘어가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포켓몬을 보면서 성장한 20~30대의 성인들까지도 매니아층이 많다. 총 1,000개가 넘는 캐릭터가 존재하다 보니 포켓몬 게임 내의 전자 백과사전인 전국 도감에 등재되어 있다.

마블 히어로즈
스파이더맨과 헐크, 아이언맨 등은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좋아하는 히어로즈들. 이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히어로즈들의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펼쳐지는 마블 세계관(Marvel Cinematic Universe, 줄여서 MCU라고 부른다.)를 이해해야 한다.



포켓몬이라 불리는 작은 동물 같은 생명체를 몬스터볼이라는 가상의 휴대용 캡슐로 포획해 애완 동물처럼 키우면서 이들과 배틀을 하며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포켓몬스터. 몬스터볼과 수퍼볼, 마스터볼과 다양한 포켓몬 캐릭터 장난감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수퍼히어로물들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천둥의 신 토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벤져스 시리즈, 캡틴 마블, 블랙위도우 등의 영화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화 하나하나가 다른 작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영화를 보다 보면 나머지 영화들도 결국 보게 되는 매력이다.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등이 있으며 캡틴 마블과 블랙위도우 등 여성 캐릭터들의 활약도 뛰어나다.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과 더불어 할로윈 코스튬으로도 인기 만점이다.

캐치 티니핑
2020년부터 시작한 한국의 SAMG 애니메이션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시즌 1인 '캐치! 티니핑'과 시즌 2인 '반짝반짝 캐치! 보석티니핑', 시즌 3인 '알쏭달쏭 캐치! 열쇠티니핑', 그리고 시즌 4인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이 있다.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가 지구로 빨뽀이 흩어진 작은 요정인 티니핑을 찾



한국에서 시작되 아시아와 호주, 북미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티니핑. 귀여운 외모의 티니핑과 요술도구, 티니핑들이 모여 사는 하우스 등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장난감으로 출시되어 이들 선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러 지구에 와서 티니핑들을 캐치하는 내용이다. 특별한 힘을 가진 로열 티니핑들과 합체해 다양한 프린세스로 변신하는 로미의 모습은 어린 여자아이들은 물론 남자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티니핑과 대결한 뒤 티니핑을 큐브속으로 캐치하는데, 아름다운 캐릭터의 모습과 재미있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청소년과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와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귀여운 외모의 티니핑과 요술도구, 티니핑들이 모여 사는 하우스와 캐슬 등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장난감으로 출시되어 아이들 선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홍(서)지은 기자 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
라디오서울·미주한국일보 기자
현 공인회계사·슈퍼맘
소셜미디어·웰빙기사다수 게재

아시안 인종차별 다룬 '레이스 에피데믹' 공영방송 상영

팬데믹 이후 인종 차별 건 급격히 늘어나
3명중 1명은 인종 학대 당한 경험 토로

팬데믹 이후 아시아에 대한 인종 차별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인종혐오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레이스 에피데믹'(Race Epidemic)이 PBS에서 상영 중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코로나 19로 야기된 또다른 아시아 태평양 섬(AAPI)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확산을 다룬 작품이다. AAPI에 대한 제도적인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증, 차별, 폭력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Race Epidemic'은 무고한 AAPI들이 거리에서 공격을 받고 살해당하는 모습을 담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영화라고 APALF는 밝

혔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theracedocumentar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AP-NORC/AAPI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3년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 섬 출신 주민의 3명 중 1명이 인종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API 증오 근절 캠페인인) 'Stop AAPI Hate'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1만 1,409건의 혐오 행위가 보고됐다.

한편 이 작품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전국 400여곳 이상의 미국 공영 방송국 PBS에 배포됐고 향후 3년간 전국의 모든 PBS 방송국 계열사를 통해 300~400만명



북가주 데일 시티에서 열린 '레이스 에피데믹' 공개 상영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시청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작품은 PBS 패스포트(PBS

Passport) 앱(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에서도 시

APLAF 제공

소셜연금 초과 지불 통지

12면에서 계속

세금 환급에서도 원천 징수
사라의 딸은 아직도 월 120달러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SSA는 이 돈을 원천 징수해 초과 지불금을 꺼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딸의 초과 금액은 2030년이나 돼야 탕감된다. 2016년 GAO 보고서는 장애인 연금 초과 지불금은 이런 원천 징수 방식으로 회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에는 연금이 끊긴 후에 이런 편지를 받지만 SSA에서는 약삭같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돈을 회수한다.

뉴욕 퀸스에 사는 테미 에이나는 세금 환급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초과 지급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개월 후 SSA는 편지를 보내 그녀가 13세 된 2005년부터 4년간 아버지로 인해 1만 1,681달러를 추가로 받았다고 통보했다. 그녀의 오빠 역시 똑같은 편지를 받았다.

에이나는 항의했다. 아버지가 에이나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음

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거의 2년이나 끌었다. 그동안 택스 리턴을 받아야 할 1,000달러가량을 받지 못했다. 또 어느 날 SSA가 직장에 그녀의 급여를 차압한다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미 에이나는 직장을 이직한 후였다.

초과 지불금 항의

베나비데스, 플라워스, 에이나 모두 이 문제를 소셜시큐리티국의 어필(항소)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플라워서는 어필 서류를 보낸 후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담은 누군가의 틱톡 경험담 비디오를 보게 됐다. 비디오를 올린 사람은 지역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 관계자와 접촉했다.

플라워스는 조지아 노크로스 에 살고 있어 루시 맥베스 하원의원을 접촉했고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SSA에 연락했다. 플라워스는 올 여름 SSA 청문회에 출석

했다니 플라워스가 제출한 서류가 돈을 되갚을 수 없음이 증명됐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1만 7,121달러 초과 지급금이 소셜 어카운트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언니의 케이스는 계속 진행중이다. 플라워스는 틱톡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다. 그랬더니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수백여명이 고생하고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는 베나비데스는 플라워스의 비디오를 보고 지역 연방 하원의원인 클레이 히긴스에 연락을 하고 있다. 그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A는 그러나 계속 그녀의 딸에게 지불되는 120달러를 원천 징수해가고 있다.

SSA입장

SSA는 초과 지불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초과 지불에 대해 어필 할 권리가 있고 매달 최소 10달러씩 되갚을 수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에이나는 결국 법률 자문센터에 의뢰해 도움을 받아 2021년 7월 초과 지불금 잔액 모두 탕감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 케이스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독자와 함께
 돌·결혼·동창회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사진 첨부 가능)
contact@usmetronews.com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US메트로뉴스 임직원 일동

“메디칼 플랜 변경됐는지 확인하세요”

새해부터 지역에 따라 플랜 바뀔 수 있어
주치의, 메디칼 그룹 등 확인 필요

캘리포니아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메디케이드) 대상을 대폭 확대 했다고 이웃케어 클리닉이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나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반 메디칼(풀 메디칼)을 제공한다.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자격이 되면 나이에 관계 없이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메디칼을 지원하는 플랜도 카운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가입자의 플랜 변경도 불가피하다.

보험 플랜 변경

일부 메디칼 가입자는 새해부터 보험 회사 및 플랜이 바뀔 수 있다.

메디칼 플랜은 카운티마다 다르다. LA카운티의 경우 주요플랜(primary plan)이 기존 헬스넷과

LA케어에서 올해부터는 카이저가 추가된다.

그동안은 카이저 보험은 LA케어를 통해 가입해야 되지만 새해부터는 주요 플랜으로 격상돼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카이저 보험은 캘리포니아 내 37개 카운티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몰리나와 앤섬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이들 주요 플랜과 계약을 맺고 메디칼 플랜을 운영한다.

오렌지카운티는 계속 칼업티마를 통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가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MO플랜과 비슷한 관리 진료 플랜(Managed Care Plan, MCP)에 등록해야 하므로 카운티와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헬스넷은 보건국 지침

2023년		2024년	
주요플랜: 2개	하위플랜: 4개	주요플랜: 3개	하위플랜: 3개
헬스넷	몰리나	헬스넷	몰리나
LA케어	앤섬 블루크로스	LA케어	앤섬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카이저	카이저	N/A

(subcontracting 50% of Health Net's members to Molina)에 따라 새해부터 가입자의 절반을 몰리나로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혼선이 우려된다. 다시 말해 기존 헬스넷 가입자 50%는 헬스넷에 그대로 남게 되지만 50%는 몰리나로 플랜이 변경된다.

헬스넷은 현재 기존 가입자에게 헬스넷과 몰리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몰리나로 플랜이 변경된 가입자는 이와 별도로 1월 1일부터 플랜이 변경된다는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몰리나로 바뀌었지만 헬스넷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헬스넷에 연락(800-675-6110)해 플랜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갱신 & 플랜 선택

현재 거주와 카운티 보건당국, 보험회사들이 메디칼 가입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우편물 등을 통해 통보하고 있으며 플랜이 바뀌게 되는 가입자는 12월 중으로 새 플랜에 가입했다는 편지를, 1월 중으로 새 보험회사로부터 플랜 카드와 안내 패키지를 받는다. 플랜 선택 패키지(Choice Packet)를 받게 되는데 30일 안에 보험 플랜과 메디컬그룹, 주치의를 지정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본인이 원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메디칼 당국이 무작위로 지정하게 된다. 이를 바꾸려면 본인이 직접 메디칼 당국 헬스케어 옵션(Health Care Option, HCO) 부서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데까지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편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플랜 변경으로 인한 메디칼 혜택(coverage)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 플랜이 바뀌게 되는 데 따라 연쇄적으로 메디컬그룹과 주치의, 전문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그대로 받고 싶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케어 6가 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PR, 3727 W. 6th St. #230, LA, CA 90020)를 방문하거나 문자(213-632-5521) 또는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하면 된다.

이웃케어 이재희 언론담당 제공

충남대 연말모임



충남대학교 미주총동회는 지난달 9일 LA 한식당 강남회관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해 한해를 마무리했다. (323)620-6717(충남대 동창회 제공)

경기도 송년회



남가주 경기동문회(회장 임관혁) 송년회가 지난달 9일 LA 한식당 용수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창 및 가족등 150여명 참석해 동창간의 우애를 다졌다. 동창회 문의 (541)760-1339 (임관혁 회장 제공)

어전트케어 이용

9면에서 계속

어전트케어 담당의사는 장기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도 찾지 않는다. 복잡한 병력이 있거나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어전트케어 치료에 의지하면 더 큰 문제를 놓칠 수 있다.

대신 주치의는 종합적인 환자의 진료 기록을 살펴 치료 또는 검진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배가 아파서 방문했어도 스트레스나 지나친 고민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리가 뼈어 주치의를 방문했는데 치료와 함께 독감 예방주사를 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비용도 주치의 진료 비용보다 어전트 케어 비용이 더 비쌀 수 있다.

어전트케어는 진료 시간이 더 길고 또 장비도 많아 비용이 더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들어 대부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의 주치의 진료비

는 '0' 이지만 많은 보험은 다소간의 진료비를 받는다. 그렇다고 해도 병원 응급실 방문 비용보다는 훨씬 싸다.

따라서 단순히 약을 리필하거나 급한 진료가 아니라면 주치의 방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의사예약 기간이 길 경우, 많은 의료시설에서 임상간호사(NP)와 보조의사(PA)의 진료를 먼저 권하기도 한다.

웰빙 가이드

US메트로뉴스

특별한

월간 프리미엄 웰빙가이드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어금니’ 사망선고 받던 날, 그리고 남긴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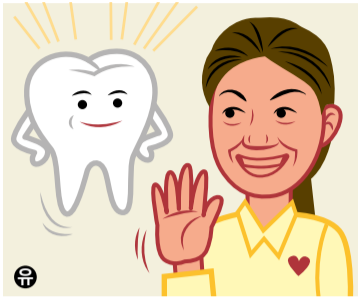
김동희의
세상보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

“이거 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한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알고는 있었다. 시간을 끌면 끝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분명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뤘다. 이런 저런 핑계를 계속 찾았다. 오늘은 너무 바빴고, 이번 주는 정신이 없었고, 이번 달에는 할 일이 정말 많았고... 그렇게 계속 넘쳐나는 이유들로 병원 예약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잇몸이 좀 부었다 싶었다. 약간의 통증도 느껴졌다. 이러다 말겠지 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 데도, 치과에 전화하는 일을 여전히 미뤘다. 대신 인터넷 폭풍 검색을 시작했다. 소금물이 잇몸 통증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소금물로 가글을 했다. 소금물보다 계피차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에 ‘시나몬 스틱’을 사와서 달여 마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정성으로 치과에 전화를 했어야 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뤘다. 이유는 간단했다. 무서웠다.

“아니, 무서울 일이 뭐가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전화해서 예약을 잡고, 병원에 가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울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커뮤니티에서 암 예방 교육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만난다. 암 검사를 미루고 있는 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무서워요.”



그럼 나는 지체없이 말한다. “만약 암이라고 해도 빨리 발견할 수록 치료가 쉬우니까 제발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당장 예약하세요.”

고개만 끄덕일 뿐,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늘 답답했다.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 보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딱 그러고 있었다. 암 검사와 치과 치료, 분야만 다를 뿐 내가 바로 ‘그사람’이었다.

치과에 전화를 걸었다. 예약이 일주일 뒤로 잡혔다. 병원에 가던 날, “왜 여태 미루다 이제 오셨어요?”라는 말을 들을까 봐 부끄러웠다. 치과의 공기는 차가웠다. 내 어금니와 부어있는 잇몸 주변과 엑스레이를 번갈아 보던 의사 선생님은 “이거 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발치해야 해요” 했다. 내 어금니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후회막심이었다.

“암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초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발 아프지 않을 때 정기검진 받으세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이 말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나는 어금니 하나를 잃게 생겼구나, 자책에 자책을 했다. 심지어 나는 은근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 예약을 미루고 있었다. 내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다. 아픈 결과였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내 자신을 조금 더 일찍 병원에 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어떻게 하면 ‘병원 가기 무섭다’라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검사 예약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어금니 발치를 앞둔 환자로서의 ‘나’와 예방 교육을 하는 헬스 에듀케이터로서의 ‘나’가 내 안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발치하게 된다고, 어금니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미리 말해줬다면, 그렇게 겁을 줬다면 어땠을까?’ 내 마음의 소리였다.

언제인가 암 예방세미나를 하면서 비슷한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그때 한 참석자가 “코디님, 그런 사람들에게겐 충격요법을 쓰세요. 검사 미루다가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가족들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된다고 겁을 확 주세요”라던 말이 떠올랐다. 당시엔 ‘충격요법으로 행동이 바뀐다고?’ 라고 반신반의했는

데, 어금니사건을 겪고 나니 효과적일 수 있겠단 확신이 들었다.

교육자료 보장을 위해 자료를 찾아보니 공중보건학에서 나오는 건강 신념 모형(Health Belief Model) 이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어떤 질병이 자신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Perceived Susceptibility)과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Perceived Severity)를 강조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이었다. 2024년도 교육자료는 조금 더 ‘겁주는’ 버전으로 업데이트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일이 커지기 전에, 질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가고 검진을 받아서 자신의 건강과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선고 받은 어금니’의 최후 소식도 업데이트 하자면, 운이 좋게도 살아 남았다. 도저히 어금니를 포기할 수 없었던 ‘김 코디’는 2차 소견을 받기 위해 신경치료 전문의를 찾아갔고, “한 번 살려보자”는 의견에 따라 재신경치료를 받았다. 올 1년간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올해의 마지막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잘 돌보고 있다는 소식, 김코디의 어금니도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 바란다.

김동희
전 미주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현재 미국병원 암센터에서 암 예방교육과 아시아인 커뮤니티 건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hkimla@gmail.com



Q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55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정기검진 중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꼭 미리미리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 보험이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A 먼저 암 진단을 받은 친구분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궁암은 자궁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통칭하며, 발생 부위에 따라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과 자궁내막암(endometrial cancer)으로 나뉩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 경부의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세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펩시미어(Pap smear)가 가장 대표적인 검사법입니다.

21세 이상의 여성은 3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3년마다 펩시미어, 또는 5년마다 HPV 검사(HPV test)와 펩시미어를 함께 받도록 권고되는데, HPV 검사는 HPV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HPV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유전자형까지 판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65세 이상

은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검사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여성은 소중합니다(EWC)’ 프로그램으로 일정 소득 미만의 여성들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암 진단받을 경우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체류 신분은 상관없이 소득 기준이 1인 가정 월 2,430달러, 2인 가정 3,287달러, 3인 가정 4,143달러, 4인 가정 5,000달러 미만인 경우면 해당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Every Woman Counts를 검색하시거나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클리닉 중 한 곳인 고려보건진료소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시다면 고려보건진료소를 포함, 가까운 내과나 산부인과 등에서 비용을 본인 부담(Self pay)하시고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검사를 받으신 지 3년이 지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도움말: 고려보건진료소 (213) 380-8833

CA LIC. #0672600

• 붕제 협회 • 익류 협회 • 한의사 협회 지정업소 • 미주 한인세탁인 총연합회 / 단체보험 남가주 추천업소



52년 신용과 전통의 한미보험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은 충분하게!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 케어
- 오바마 케어
- 연금(IRA)
- 학자금 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늘 함께 있습니다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52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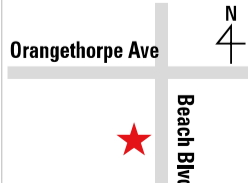
한미보험(주)
SINCE 1972
KORAM INSURANCE CENTER, INC.

www.hanmiinsurance.net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Garden Grove
714.530.5500
Irvine
949.929.8870

Valley
818.383.1111
Fresno
559.233.0099



여름을 시원하게!

